

2009

해외출장 보고서





Contents

Part 1. 달콤한 초콜릿, 가나의 자연환경 05

정 중 관 _ 환경생태연구부 연구위원

Part 2. 근대 문화가 살아있는 홋가이도 19

권 영 현 _ 공공디자인센터 연구위원

Part 3. 일본 농촌의 도시민 유치 현장을 가다 37

유 학 열 _ 공간계획연구부 책임연구원

Part 4.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 가나자와(金澤) 51

이 충 훈 _ 공공디자인센터장

Part 5. 영국 도시재생 성공사례 조사 보고서 71

김 정 연 _ 도시재생연구센터장
조 수 희 _ 도시재생연구센터 전임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
2009 해외출장보고서

Part 1.

달콤한 초콜릿, 가나의 자연환경

정 종 관 _ 환경생태연구부 연구위원

Part 1.

달콤한 초콜릿, 가나의 자연환경

정 종 관 | 환경생태연구부 연구위원

2009년 5월 17일부터 22일까지 서부 아프리카 가나에서 “영향평가와 인간의 행복(Impact Assessment and Human Well-being)”을 주제로 제29차 세계영향평가학회(IAIA)가 열렸다.



[사진 1] 제 29차 세계영향평가학회 학술대회

이런 주제를 설정한 이유는 생태계 서비스와 인간의 행복을 지식기반으로 연계하여 발전과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대세로 만들어가기 위한 수단의 개발에 중점을 두려고 했기 때문이다. 새천년생태계평가(2005) 기준에서 본 인간의 행복 요소는 안보, 삶의 영위를 위한 기본적인 물질

욕구, 건강, 좋은 사회적 관계, 선택과 행동의 자유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에는 전 세계 90개 국가에서 550명의 환경영향평가 전문가들이 참가했는데, 참가자들의 면면을 보면 환경평가방법론을 다루는 각국의 환경학자와 교수,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 환경컨설팅 업체,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부 및 공공기관 관계자, 제3세계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차관을 제공하는 세계은행 및 국제금융기구의 환경성평가 담당자 등이 대부분이다.

세계영향평가학회는 환경평가기법 개발, 각국의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친 영향이나 사례 등에 대한 정보교환 및 경험공유의 장으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의 환경영향평가의 연구방향 추세는 환경지속성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도구로써 정책, 계획, 프로그램, 사업추진 등 전과정에 대한 전략환

경평가(SEA)의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삶의 질 향상이란 점에서 건강영향평가(HIA), 사회영향평가(SIA) 등 평가기법의 다양화, 세분화가 점점 더 강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방법론이 성숙해지고 적용되는 요인 변수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영향평가의 실제성과 신뢰성도 도전을 받게 된다. 그 결과 환경영향평가 수단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하는데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되는지 조사해보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학회의 주제는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평가의 영역과 사안에 대해 주제포럼(Theme Forum)과 분야별 발표(Concurrent Session)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학회에서 다뤄진 주요 주제로는 공동체의 복지와 건강수호, 새천년목표로서의 빈곤 타파, 석유가스자원의 개발, 정보통신과 지속가능한 발전, 공급사슬과 영향평가의 연계, 남북간의 저에너지 해결책, 환경영향평가 수단과 방법론, 환경과 사회를 고려한 동향 등을 다루고 있다.

현재 세계적인 영향평가의 동향은 의사결정 지원시스템으로서 전략환경평가가 강조되면서 사업단계의 환경영향평가, 사람과 생태계의 건강성을 반영하는 건강영향평가, 시공간적 복합사업 시행에 따른 누적영향평가의 통합을 통해 인간의 복지를 어떻게 증진시킬 것인가를 고려하는 전략적 의사결정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추세다.

특히 제3세계에서 열린 학회의 특성상 그들의 자연환경 여건과 국가의 보전관리정책 동향을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흔히 아프리카하면 내전, 빈곤, 말라리아, 에이즈 등 부정적인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환경적 관점에서 인류문명 발달사를 기술한 「총 · 균 · 쇠(Guns, Germs, Steel)」로 유명한 환경학자 '제라드 다이아몬드'가 언급했듯이 21세기는 더 이상 과거의 부정적 이미지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다.

아프리카의 농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펴낸 보고서(2009. 6)에 따르면 아프리카는 전 세계 인류의 식량을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면적의 비옥한 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보고서는 '16억 헥타르의 토지를 아프리카와 남미에서 추가로 찾을 수 있으며, 이는 현재 경작면적인 14억 헥타르와 합하면 증가하는 인류 모두에게 식량을 제공할 수 있는 토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FAO와 세계은행이 작성한 2차 보고서에서는 약 4억 헥타르의 경작지를 현재 25개 아프리카 나라에서 확보할 수 있으며, 이 토지는 경작하기에 아주 비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특히 이 같은 경작지 확보 노력은 바로 태국 등에서 최근 시행한 경작개량사업을 예로 들면서 관개시설과 토지의 비옥도 문제 해소를 최적의 경작지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프리카에서도 개간한 토지를 경작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는 강력한 정부의 조치만 있다면 충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보고서는 아프리카 지역의 광대한 토지들은 보기와는 달리 비옥한 토지이며, 단지 관개시설의 미비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치체제가 갖춰지지 않아 식량을 계속해서 다른 지역에서 수입해야 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사진 2] 초콜릿의 원료가 되는 카카오열매

아프리카의 환경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각국은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고, 배출권(CERs: Certified Emission Reduction)을 확보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매립가스의 포집, 폐기물의 자원화 등에 대한 CDM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프리카 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아프리카 도시들은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대기오염도가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으며, 산업오염, 농업폐기물과 쓰레기소각, 낡은 자동차 사용, 질 낮은 연료사용 등으로 인해 환경, 건강, 농작물에까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에 국제사회는 아프리카가 산업화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여 청정 에너지를 개발하고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세계은행(World Bank)과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이 주도적으로 아프리카 대륙 내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화사업 등 선진국의 투자를 보다 활발하게 진행시켜 주기를 요구하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의 공통점은 각국 정부가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큰 관심과 정부차원에서 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갖고 이와 관련된 사업을 개발·추진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기후변화 및 CDM관련 유관 정부기관들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자국의 기후변화정책 및 투자환경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

가나에서는 폐기물매립지와 CDM 연계사업을 비롯하여 전통적 농업국가의 특성상 자트로파 등 바이오디젤 연료 생산사업 등에 큰 관심을 가지고 각 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기후변화 및 CDM 관련사업을 개발하고 당사국간 공동연구의제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협력 채널확보가 요구된다. 따라서 각국의 관련 전문가들과 정보 및 인적 교류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기후변화분야의 협력의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림 1] 가나의 여행지도

가나의 환경

가나의 기후조건은 열대기후로 연평균 23~31℃ 수준이며, 1년에 우기는 3~7월, 9~10월 두 번이다. 건기인 10월 중순에서 다음해 3월 중순까지 사하라사막에서 불어오는 북풍(Harmattan)으로 인해 시정(視程)이 상당히 줄어든다.

학회가 열리기 전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수도 아크라에서 동쪽으로 40km



[사진 3] 샤이 자원보호구역의 바오밥나무

떨어진 ‘샤이 자원보호구역(Shai Resource Reserve)’ 인데 이곳은 사반나 식생으로 비교적 경사가 완만한 지형으로 오래된 바오밥나무가 시선을 잡는다. 1892년까지 샤이족이 거주하던 곳으로 도기, 유리구슬 공예품, 코끼리와 야생들소 뼈 조각이 발견되었

다. 그 외에 31종의 포유류, 175종의 조류, 13종의 파충류 이외에 원숭이 등의 중요한 서식지 기능을 갖고 있다.

이 지역에서 90km 더 가면 가나 북쪽 부르키나파소에서 발원하여 가나 동부지역과 이웃나라 토고를 관통하는 유명한 불타강을 가로막은 아코솜보댐과 불타호가 있다.

불타호는 세계에서 가장 큰 인공담수호로 호소 표면적이 8,502km²로 거의 충청남도 면적 크기에 해당한다. 이 댐은 가나가 1957년 영국 식민지에서 독립한 이후 수자원개발과 용수공급, 홍수조절 기능을 담당하는 국토개조를 목표로 한 거대한 프로젝트로 1962~1966년까지 이루어졌다. 이렇게 호소표면적이 큰 만큼 52개 지역 8만 명의 수몰민 이주와 지역사회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호소면적과 담수량에 비해 발전량은 840MW로 소양강댐 전력생산능력의 4배 정도이다. 그만큼 지형이 완만한 상태인데다 호소면적이 커서 일반적으로 홍수 시에 유입되는 부유쓰레기 문제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사진 4] 아코솜보댐 수력발전 설비(좌)와 불타호의 아코솜보댐에서(우)

수도 아크라라는 대서양에 접한 도시로 고층빌딩이 적고 나지막한 건물이 숲으로 둘러 쌓인 도시이다. 그런 점에서 생태도시의 특성을 갖추고 있으나, 도시의 평면적 확산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심한 도로교통 체증, 미처리된 하수도, 낡은 자동차에 의한 매연과 석유냄새 등 취약한 도시기반시설로 인한 도시환경문제가 지역적 이슈로 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 등에서 수입한 낡은 차에다 차량유류의 옥탄가가 낮아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냄새가 심하여 건강에도 안 좋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먹는 물은 우물물이나 비닐봉지에 담긴 생수를 사용하는데 사용한 비닐과 페트병 등이 무분별하게 버려져서 도시미관과 경관 등을 크게 해치고 있다. 그리고 전력기반시설이 부족해서 에어컨을 가동하면 과부하로 인해 전등불빛이 흐려질 정도로 전력사정이 불안정하다.



[사진 5] 아크라 해안의 청소년축구단(좌)과 아크라 교외의 우물물 나르는 여인(우)

아크라라는 식민지시절 노예 수출의 거점도시였으며, 내륙에서 끌고 온 노예들의 집결지로서, 지금도 노예감옥이 남아 있다. 역사의 아이러니지만 노예감옥이 지금은 관광객의 방문지로서 인간의 존엄성과 역사의 엄중함에 대해 교훈을 주는 곳으로 탈바꿈하였다. 그래서 아크라의 옛 시가지는 오래된 낡은 집과 좁은 길, 혼잡한 거리 등으로 아프리카다운 느낌을 준다. 지금은 도시재생 사업과 미처리하수로 오염된 습지 복원작업이 진행중에 있으나 워낙 사회간접자본이 부족하고 수질이 나빠 환경정화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콜레 라군(Korle Lagoon) 복원지역의 경우 부유쓰레기를 차단하는 차단막과 수처리 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나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호소습지의 수질은 과거 난지도 매립장 침출수 수준인데, 혐기성 분해가 일어나고 있어 악취가 심하다. 그런 가운데에도 망그로브 나무는 호소 주변에 자라고 있고, 나무에는 새들이 곤충 등을 잡아먹으며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수질이 개선되고 호소와 바다가 연결되어 물 순환이 원활해지면 점차 개선될 전망이다.

한편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노예해안에 위치한 망루가 해안침식에 의해 유실되었고, 수변구역에 위치한 건물이 무너져 내린 흔적을 볼 수 있다. 그래도 해안에서는 중학생들이 축구를 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낙천적이고, 우리 한국 사람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자세를 보인다.



[사진 6] 콜레 라군 생태복원 사업의 유입수 차단시설(위)과 아크라 해안침식에 의한 유실(아래)

아크라에서 서북쪽으로 200km 떨어진 '카쿰 국립공원'은 면적 357km²이며 1932년에 지정되었다.

이곳은 최고 90여m에 이르는 거목 열대우림지역으로 생물종의 다양성을 직접 느끼고 자연의 경이로움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다. 희귀한 나비, 조류, 사냥감 이외에 봉고영양, 숲코끼리 등이 있는데 코끼리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과일을 주워가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지상 30~40m 높이로 설치된 단집관찰로(canopy walkway)는 식줄과 그물망으로 거목사이를 연결하고 있는데 못으로 박은 흔적이 없었다. 그만큼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하였고 탐방객이 유격훈련 하듯 천천히 거닐며 자연의 위대함을 맛볼 수 있다.



[사진 7] 사반나지역의 봉고 영양(좌)과 카쿰 국립공원의 숲코끼리(우)

열대우림은 재질에 따라 경목(hardwood)과 연목(softwood)으로 구분된다. 대체로 상록수림으로서 마호가니 종류처럼 경목이 대부분이지만 침엽수는 아니나 재질이 부드러운 연목도 있다.

이는 성장속도가 빠르고 많은 동물들의 서식지이며 지역주민에게는 식량, 연료, 의약, 목재 제공기능을 갖고 있어 신약개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국립공원 안내자는 이 공원의 역사적, 생물자원의 가치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삶의 터전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사진 8] 카쿰 국립공원 안내판(좌)과 국립공원의 당과(糖菓)나무를 설명하는 안내원(우)

탐방객 센터에는 국립공원의 가치, 열대우림 잠식화의 원인, 서식하고 있는 다양한 생물종에 대해 상세한 설명과 함께 탐방객이 직접 만져보고 생태적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차원에서도 배려한 흔적이 묻어났다. 그 상황을 보면 교육이야말로 인간의식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며, 아이들이 일찍 학교에 가는 모습만 보더라도 이 나라의 장래가 밝고 탄탄함을 보여준다.



[사진 9] 케이프 코스트 해안지역 마을 풍경

가나는 1957년 독립이전에는 황금해안의 나라(Gold Coast)로 불렸다. 이 나라의 자연환경 조건은 강우량이 충분하고 동부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250m 이하의 평탄지형이므로 옥수수, 카카오, 사탕수수 재배에도 적합하다고 한다. 그래서 식생이 양호한 야산 지형을 개간하거나 농업용지로 개발하기에 비교적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바이오연료 생산을 목표로 열대농업 기술을 전수하고 세계로 향한 한국인의 부지런함과 열정이 이들의 힘과 합쳐지면 우리나라에게도 황금의 나라로서 협력관계 구축이 용이할 것이다. 무엇보다 가나가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서부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경제발전 속도도 빨라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 정립 차원에서도 향후 관심이 집중될 것이다. 



충남발전연구원
2009 해외출장보고서

Part 2.

근대 문화가 살아있는 홋카이도

권영현 _ 공공디자인센터 연구위원

근대 문화가 살아있는 홋카이도

권영현 | 공공디자인센터 연구위원

전통재래시장을 되살리려는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다. 버거운 경쟁 상대인 대규모 신유통과 대적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후한 장옥을 철거하여 현대화하고 주차장을 증설하며, 상인대학 운영, 경영 및 마케팅 기법 지원 등 쇠락해 가는 재래시장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회생시키려는 다양한 처방이 시도되었다.

이번 연수는 지역의 고유한 문화 역사자원을 자원화하고 상품화하는 선진 사례를 배우기 위하여 일본 속의 또 다른 일본 홋카이도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메이지 시대 개척시기의 변성과 침체, 그리고 극복과 재생으로 이어지



[그림 1] 홋카이도 지도

는 과정을 통하여 전통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여 보존하고 자원화하는 그들의 전통 문화의 활용 방법을 통해 우리가 구상하는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목적을 두었다.

현지 연수는 2009년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일본 홋카이도(北海道)의 시라오이(白老), 노보리베츠(登別), 도야(洞爺), 오타루(小樽), 삿포로(札幌) 일원을 방문했으며, 각 도시의 대표적인 전통 문화자원과 재래시장, 상공회의소 및 마을만들기협회 등을 방문하여 고유한 전통 문화를 내세워 새로운 지역 자원을 알아내는 지혜를 엿보며 선진 사례를 습득하는 기회를 가졌다.

II. 시라오이

1) 고유성의 재발견과 정형화

시라오이 정(白老町)은 축산업과 어업, 수산가공과 제지업과 관광산업이 주산업인 홋카이도 이부리 지청에 속한 인구 2만명 가량의 소도시이다.

시라오이에는 홋카이도 선주민인 아이누족의 대규모 거주지인 아이누코탄이 있었고, 지금도 아이누 혈통을 잇는 사람이 많이 살고 있다.

이런 연유로 여기에 아이누민족박물관이 세워져 아이누족의 문화를 전승·보존하고 연구하며, 방문객에게 체험학습, 전시, 민속공연 등 문화체험을 제공하는 중심장소로 자리잡았다.

박물관 콘텐츠 중 중요 무형민속문화재로 지정된 아이누전통무용 공연이 단연 백미인데, 관람객이 지루하지 않게 짧은 주제로 이어지며, 공연 도중 외국인 관객과 사설을 주고받는 등 관객이 공연에 일체화할 수 있게 진행되고 있었다.

아이누족 고유의 의·식·주 등 일상생활 또한 수공예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머무르지 않고 북방민족 특유의 목공예, 섬유평예, 수렵도구, 장식품, 모피의류로 상품화하는 등 지역이 보유한 전통성을 재현하고 발굴할 뿐 아니라 새로운 틀로 정형화하여 고객에게 가깝게 접근하는 적극적인 마케팅 수단을 보여주고 있다.

2) 지역 산물의 로컬푸드화

식재천국(食材天國)을 자칭하는 시라오이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축산물과 수산물을 일반 유통하는 동시에 지역 음식으로 개발하여 지역 내에서 판매함으로써 시라오이의 우수한 식재료 이미지를 부각시키며 지역 브랜드를 더욱 명확하게 하고 있다.



시라오이 특산물인 소고기 등을 주재료로 하는 햄버거와 버글을 판매하는 음식점. 전면에 B.B 마크 사인을 부착했다.

그 중 하나가 시라오이 버거&베글 연합회의 'B&B' 브랜드인데 시라오이나 홋카이도 산 식재료로 만든 버거와 베글을 개발, 지역 특산물의 소비를 촉진하며 상품화하고 있다.

‘시푸드 카레’는 시라오이가 개발한 또 다른 로컬 푸드로서 시라오이 산 접시조개가 주재료인 ‘접시조개 카레’를 정내 8개의 기존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로컬푸드 사업이다.

2009년 7월, 접시조개 카레를 정식메뉴로 시작하여 시라오이산 털게, 연어, 새우, 다랑어 등 80여종의 해산물을 재료로 하는 다양한 후속 메뉴가 연이어 출시를 기다리고 있다.

시라오이 버거 & 베글에 사용되는 재료

- 시라오이 소고기 : 브랜드 지명도가 상승세에 있는 시라오이 소 (정내에 5개의 판매점이 있으며, B&B 회원 축산가에서 구매)
- 虎杖浜 명란젓 : 동경 어시장에서도 지명도 있는 시라오이 특산물
- 계란, 새우, 접시조개, 은대구, 연어, 연어알, 가리비, SPF돼지고기(특정병원체 부재) 등 시라오이 산 육류와 수산물을 사용하며 홋카이도 산 보리로 만든 버거빵을 내세워 지역 특산물의 브랜드 입지를 확고히 하며 새로운 상품도 아울러 출시 (식자재와 신상품의 시너지 효과)

이러한 지역 특산물 활용사업은 지역 고유성을 지닌 산물을 적극적으로 상품화하는 노력일 뿐 아니라 지역을 찾아오는 방문객에게 깊은 감흥을 줄 수 있는 한 차원 앞선 관광자원화의 결실이다.

홍보 대상도 지자체 내의 산물에 한정되어 홍보가 보편적인데 반해 자기 지역 뿐 아니라 광역 지역의 산물을 더불어 홍보하여 지역 브랜드의 가치를 연계 상승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회 결속 및 활동의 주체는 주민 또는 상인들로 사업 기획, 추진, 홍보, 실행을 스스로 진행하고 있으며, 행정 기관은 말 그대로 점포 장려, 사업 운전자금 대출에 관한 지원 장려에 해당하는 행정만을 담당하고 있다.

Ⅲ. 노보리베츠

1) 이야기로 만들어진 노보리베츠

노보리베츠시는 홋카이도를 대표하는 온천 휴양도시이다. 1858년 유황채굴업자 ‘오카타한페’가 이곳에 처음으로 대중 온천탕을 시작한 이래, 주민 스스로 접근이 열악한 교통기반을 개선하여 마차, 궤도마차, 연결전차, 버스에 이르기까지 현재의 모습으로 이루어 놓았다.

노보리베츠에서는 활화산 분화공의 수만큼이나 많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또 만들어지고 있다. 분화공의 끓어오르는 열탕과 유황 내음, 매캐한 노천 계곡이 마치 도깨비가 사는 지옥과 같다하여 자연스레 도깨비가 시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밖에도 온천 개발 역사와 유래, 염라 전설 등 스토리를 만들어 신비롭고 정감있는 노보리베츠 이미지를 이루는 탄탄한 기반이 되고 있다.

연수단의 숙소인 다이니치다키모토칸(第一瀧本館) 역시 창업자가 이곳에

서 온천욕으로 아내를 치료한 이야기를 스토리 브랜드화 하여 瀧本の湯, 愛妻の湯라는 누구라도 공감하는 브랜드로 활용하고 있다.

온천 외에 별다른 관광자원을 갖추지 못한 온천마을에서는 단조로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규모 문화 공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도깨비에서 파생된 대금봉(大金棒) 조형물과 연주, 민속 공연이 주기별 마련되어 관광객들에게 또 다른 감흥을 선사한다. 노보리베츠도 지역 산물에 대한 배려가 예외는 아니며 관광 상점 뿐 아니라 호텔 내에서도 지역 특산물을 소재로 하는 다채로운 상품이 구비된 매장을 마련하여 지역의 매력을 관광객에게 한층 가깝게 보여주고 있다.

2) 에도 시대로의 여행 노보리베츠 시대촌

노보리베츠 시대촌은 지역 전통 문화를 소재로 하는 대표적인 관광자원으로 막연히 시대의 재현을 넘어 에도(江戸) 시대 때 번성했던 다테항 마을을 면밀한 고증을 거쳐 재현한 민속촌이다. 입장 전부터 사무라이 복장을 한 피에로가 분위기를 환기시키기 시작하여 단지에 들어서면 기념품상점, 찻집, 라면전문점, 전통과자점 등 전통풍 상업시설이 구비되어 있다. 철저하게 에도 시대의 특징을 재현한 건축물은 물론 시대촌 대표를 비롯한 상점 종사자나 스태프들이 완벽한 에도풍 의상으로 차려 입어 마을 전체가 시대를 거슬러

간 듯한 착각에 빠지게 한다.

시대촌은 한 마디로 과거 생활상의 재현에 그치지 않고 지금 시대의 소구대상의 경향과 요구에 걸 맞는 흥미 요소와 코믹하며 낭만적인 요소가 가미된 살아있는 예능 이벤트 랜드라 할 수 있다. 공연 콘텐츠는



노보리베츠 시대촌은 코믹 시대극 공연이 주 콘텐츠이다. 공연 구성의 특징은 극 진행이 배우 외에 관객의 적극적인 참여로 장소에 대한 매력을 더욱 극대화 하고 있다.

닌자 이야기를 다룬 닌자도리데, 오다이진 놀이(부자놀이)인 난마게 등 관람객에게 적합한 시대 단막극인데, 객석과 무대의 경계가 없는 현장극으로 진행되거나, 관객이 공연 전에 배역을 맡아 함께 공연에 참여하는 등 언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외국 관광객에게도 감흥을 줄 수 있게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공연 콘텐츠 외에 우리의 서당에 해당하는 테라코야를 운영하는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한자 교육과 전통 예절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등 또 다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시대촌 입구에 위치한 대규모 전통건축으로 재현된 관광음식점 아오바고텐에서는 단순한 식단인 것 같지만, 지역 특산물인 감자, 옥수수, 닭고기를 주재료로 하는 지역 고유의 소박한 전통 메뉴를 선보이고 있는데, 음식 맛 보다는 지역과 시대 분위기를 맛 보여주고 있었다.

IV. 도야

1) 도야 마을만들기 관광협회

도야호 및 활화산 온천 관광지역 내에 위치한 농촌마을인 도야마을은 농업과 여름철에 도야호를 활용한 체험 수상관광이 주 수입원이다.

비영리 단체(NPO법인)인 도야 마을만들기 관광협회를 중심으로 ‘도야 마을만들기’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데,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역 농산물과 특산물 판매와 여름철 캠프촌 및 수상 레저 시설의 임대와 주된 사업이다. 판매 사업은 관광 버스 휴게소와 호수 전망대 사이에 판매 센터인 미즈노엑기(수변역, 일본에서는 역이라는 명칭을 흔히 사용함)를 설치하여 이 사업의 거점 장소로 활용하고 있다.

보다 많은 외부인의 방문을 촉진하기 위하여 미즈노엑기 내에 개방화장실

을 설치하였고 관광버스가 정차하는 휴게소를 노선버스 정차 휴게소로 확대 활용하여 관광객 외에 주변 주민들까지 목표시장으로 확대하고 있다.

도야 마을의 특성 및 규모에 적합한 홍보방식을 활용하고 있는데, 미즈노 역기에 진열된 상품의 하단에 효능, 조리법 등 상세한 상품 정보를 기입하는 섬세함을 보여주는가 하면, 매체를 활용한 대규모 홍보 보다는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형 이벤트나 마을 내 음식점과 관광시설이 소개된 간단한 리플릿을 제작·배포하는 등 실효성을 위주로 하는 홍보를 펼치고 있다.

현재는 2008년에 G8 정상회담 개최되었음을 상기시키는 고객 응모 이벤트인 ‘2009 홋카이도 도야호 애프터 서밋 스탬프러리’를 시행하고 있었다.

‘ 2009 홋카이도 도야호 애프터 서밋 스탬프러리 ’

도야마치초くり관광협회 주관으로 인근 음식점 6개, 관광 체험장 18개, 미즈노역기(농산물 판매점) 등 분야별 1개 업소의 스탬프를 응모엽서의 해당란에 찍어 반송하면 추첨하여 가맹점 숙박권이나 신선한 야채를 증정하는 이벤트로 가맹 회원점의 존재를 관광객에게 분명히 인식 시키는 효과를 기대

2) 살아있는 활화산의 상품화

도야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으로 도야호와 현재도 활동중인 활화산 군인 쇼와신잔과 우수잔을 들 수 있다. 쇼와신잔은 쇼와(昭和)시대인 1943년에 평탄한 보리밭이 화산 폭발한 이후 지반이 지속적으로 융기되며 생성된 해발 402m의 활화산으로, 산기슭에 있는 쇼와신잔 미화센터에서 쇼와신잔의 생성과정과 분화할 당시의 모습, 주변 식생 등을 영상자료로 볼 수 있게 조성되어 있다.

우수잔은 대우수, 소우수, 우수신잔, 화구군 등 1663년부터 주기적으로 분출한 화산군으로 둘레를 따라 전망 지점이 마련되어 있어 살아있는 화산의 모습을 살펴 볼 수 있다.



보리밭이 지속적으로 융기하여 생성된 쇼와신잔의 기록과 보존을 개인적으로 수행한 우체국장의 기념 동상

도야는 주기적으로 화산 분출이 발생되어 피해가 이어지는 지역임에도 이곳 주민들은 이러한 재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자연 재해인 화산분출과 화산지역 일대를 기록하고 상품화 하고 있는 열정스러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쇼와신잔의 생성과 지형 변화를 관측하고 기록한 주인공인 우체국장의 동상을 건립하여 주인공 만들기와 함께 관련된 스토리를 부각시

키고 있으며, 이 장소가 겨울철 행사인 눈싸움을 시작한 지역임을 각인하기 위해 ‘눈싸움(눈싸움 이벤트)의 발상지 쇼와신잔’이라는 새로운 기원을 만드는 등 관광자원에 실감을 더하는 생명력을 넣고 있다.

V. 오타루

1) 로맨틱 스트리트 오타루

메이지(明治) 중기부터 타이쇼(大正) 시대에 걸쳐 변창했던 항만도시였던 오타루 시는 지금은 관광이 주산업인 소도시이다. 오타루 시내 곳곳에는 이 시기에 세워진 역사적인 건축물이 많이 남아있어 유럽의 중세도시에서 느낄 수 있는 이국적이고 낭만적인 도시 풍경을 자아내고 있다. 북쪽의 월스트리트라고 불리었던 이로나이 거리 주변에 있는 일본은행을 비롯한 여러 은행의 석조건물과 중후한 석조 창고 등이 대표적인 근대 건물군으로서 지금은

내부를 개조하여 관광객용 음식점이나 쇼핑점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오타루시 선정 역사적 건축물로 지정되어 있는 ‘오르골당’ 역시 1912년 세워진 벽돌과 석조로 마감된 2층 목조 건물로서, 본래 미곡회사 창고였던 건물을 재건축하여 지금은 대규모 오르골 전시판매점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곳에는 유리제품의 오리지널 오르골을 비롯하여 15,000점이 넘는 진귀한 오르골이 전시되고 있어 오타루시의 낭만적이고 환상적인 이미지를 더욱 뚜렷하게 하는 명소가 되었다.

오타루 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장소로 오타루 운하를 들 수 있는데 항만기능이 쇠퇴하면서 철거될 위기도 있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그 모습이 남게 되었다. 석재 보도로 된 산책로에는 각종 기념 동판과 가스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인력거 등 근대 시기로 거슬러간 듯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어 오타루의 도시 모습을 형성하는 주요한 장소가 되고 있다.



근대 석조건축물의 형태를 표준으로 시가지가 일정한 건축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다.

오타루시의 매력은 한마디로 작은 도시이지만 뚜렷한 도시 색채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초기 도시가 형성될 시기에 유행했던 네오 바로크 양식의 석조 건물 양식을 도시 전체에 적용하는데, 새로 지어지는 건축물에도 동일한 유형이나 입면 모습을 갖도록 하여 일관된 도시의 시대 모습을 연출

하고 있었다. 여기에 이러한 도시의 외형에 딱 들어맞는 관광 콘텐츠인 오르골, 유리공예, 초콜릿 등의 소재를 담고 있는 것이다.

활용도가 없어진 운하를 재정비하고, 방문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관광 명소로 재탄생 시키며, 근대 건축물을 없애거나 단순히 보존하는 단계를 넘어 새로운 활용 방안을 접목시켜 재탄생 시키고 있는 노력들은 점차 사라져가는 근대건축물을 놓고 고민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도시이다.

2) 오타루 「 시내에서 쇼핑하기 운동」

소비성향의 다양화나 도시 간 경쟁의 심화, 인구의 감소, 중심상점가의 대형점 폐쇄의 영향으로 2003년 오타루시의 소매상품 판매액이 1,592억 엔으로 지난해에 비해 150억 엔이 감소하는 등 상권이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

[표 1] 오타루시의 연도별 상업통계수치

상업통계수치

| 연 차 | 점포수(점) | 종업원수(명) | 판매액(억엔) | 도내 비중 |
|------|--------|---------|---------|-------|
| 1987 | 2,479 | 10,606 | 1,492 | 2.5 |
| 1990 | 2,414 | 10,315 | 1,793 | 2.6 |
| 1993 | 2,276 | 10,933 | 17,86 | 2.5 |
| 1996 | 1,960 | 10,355 | 1,872 | 2.5 |
| 1998 | 1,946 | 12,249 | 1,856 | 2.6 |
| 2001 | 1,812 | 11,215 | 1,743 | 2.6 |
| 2003 | 1,775 | 10,570 | 1,592 | 2.4 |

* 2003년 홋카이도 점포수 : 48,858, 종업원수 359,897, 판매액 : 65,651억엔

이에 따라 오타루상공회의소를 주축으로 오타루 시의 상권 회복을 위하여 시내에서 쇼핑이나 음식점 이용 추천을 행정, 각종기관, 단체등과 연계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먼저 오타루상공회의소, 오타루시광보, 신문보도를 통해 공모하여 결정된 캐치프레이즈 ‘우리 모두 거리의 서포터, 오타루에서 쇼핑은 오타루의 원기’ (みんな街のサポーター 小樽で買物 小樽の元氣)를 행정, 각종기관, 단체나 상인 등이 사용하는 광고지, 서류통, 신문, 리플렛, 스티커 등 매체 및 상공 회의소건물에 게시하는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광고사업으로는 노선버스, 택시에 포스터 및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FM오타루 「상공회의소 소식」 등 매체활용과 홋카이도 중앙버스 차내 방송을 실시

하는 한편, 중심 상가에서 홍보물을 배포하는 캠페인을 실시하며, 계발상품으로는 탁상용 미니 노보리기(배너의 일종)를 제작, 배포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VI. 삿포로

삿포로는 홋카이도의 도청소재도시로 1899년 미 농무성 추천으로 초빙된 메사추세츠 농과대학장 윌리엄 클락 (William S. Clack)에 의해 계획된 도시이다.

아이러니하게 일본 속의 또 다른 미국적인 도시로 시가지는 바둑판처럼 정연한 가구(街衢) 구획을 보이고 있다.

1) 전통시장의 진수 장외시장

장외시장이란 중앙도매시장 밖에 위치한 소매시장으로 대개 새벽 4시쯤에 개장하여 오전 10시에 파장한다. 이곳 삿포로 장외시장 역시 삿포로 중앙시장 밖에 위치하여 수산물과 일부 청과물을 판매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취급하는 신선한 수산물을 재료로 하는 초밥이나 덮밥을 판매하는 음식점이 구색을 이루어 시장다운 분위기를 한껏 풍기고 있다.

삿포로 장외시장의 구조는 한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상회가 연립한 형식의 시장이 도로를 따라 길게 늘어서 있는데, 한 건물에는 주 상점과 여러 개의 소형 상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일된 형식의 연합 간판을 사용하고 있어 건물간의 차별성과 건물 내에서의 통일성이 조화롭게 유지되고 있다.

시장 건물은 지은 지 오래되었고 상점 입구 보행로의 폭도 좁은 편이지만 지속적인 건물의 개보수와 외관과 달리 내부의 진열상태나 상품설명이 잘

되어 있으며, 상점 앞 적재 라인을 준수하기 때문에 재래시장에서 통상적으로 느끼는 혼잡함이나 불결함은 없었다.

또한 인근 지역 주민에게 식재료를 공급하는 시장으로 그치지 않고 각종 관광 협회와 제휴를 맺어 관광객이 들르는 장소로 명소화하여 시장을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2) 삿포로 시장의 역사 다누키코지

다누키코지란 말은 일본어로 ‘너구리 골목’이란 뜻으로, 옛날 삿포로에는 능숙하게 사람을 속이는 여성들이 많아 그렇게 이름 붙였다고 전해진다.

1873년 홋카이도 개척사 관사가 구도본청(舊道本廳) 옆 터에 세워지면서 몇몇 점포들이 점차 모여들기 시작하여 현재와 같은 아케이트의 모습과 규모로 형성되었다. 동서 약 90m 거리, 7개 블록에 걸쳐 약 280개의 상점들이 집중적으로 몰려있으며, 특산품점과 음식점, 영화관, 의류점, 파친코 등 점포가 늘어서 있고 주변에는 백화점과 100엔 숍도 모여 있어 시장다운 북적임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장소이다.



농수산물이 풍부하여 지역 산물을 판매하는 상점이 눈에 띈다.

상점이름도 둔전사로 지역 특성을 띈다.

모든 아케이트가 1차 비가림 시설을 한 이후 1~6정목 아케이트는 1972년 11회 삿포로 동계올림픽 개최 시기에 재차 개폐식 비가림 시설을 하여 지금까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상권이 침체된 7정목은 재래식 함석 비가림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모든 정목의 비가림 아치의 형태나 색상과 개별 점포 전면의 돌출식 간판

의 형태는 일정하지만 돌출 간판 면의 상징색과 디자인이 정목마다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개별 간판은 일정한 룰이나 크기, 벽면 돌출 정도, 수량 등에서 기준은 없었으나 일정 수량 이상 설치 할 때에는 시에 간판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외 업소 전면부의 상품 적재 진열 라인이나 자동차 통행금지 등 자체 규약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 다만 통로 중앙부에 접이식 벤치 설치 외에는 휴식 공간 마련이 부족한 점을 보였다.

3) 홋카이도의 심벌, 홋카이도 구본청사

아카렌가(赤煉瓦) 붉은 벽돌라는 별칭으로 알려진 구본청사 건물은 홋카이도 개척 초기인 1888년 도청 건축기사에 의해 당시 유행하던 미국풍의 네오 바로크 양식으로 설계되었다. 건축에 소요된 벽돌, 석재, 목재 등 대부분 재료가 홋카이도에서 생산된 자재를 사용하였다.

건물 넓이 61m, 폭 36m 탑정상부까지 높이가 33m로 현재의 10층 건물의 규모와 같아 고층 건물이 없던 당시에는 보는 이를 압도시키기 충분한 위용을 지닌 홋카이도의 명물이었다.



홋카이도 구도청사 건물.

붉은 벽돌 외장으로 아카렌가로 불리는 홋카이도 상징물

내부는 바로크 건축 특유의 아치형 천장과 실내장식이 아름다우며

낭만적인 멋이 살아있다. 1909년 화재로 내부가 소실된 후 1911년 복구를 마쳤으며, 1968년에는 1896년 철거했던 중앙 팔각탑과 환기구 등을 포함한 복원공사를 마치면서 지금의 모습을 되찾게 되었고, 1969년 국가중요문화재로 지정되었다.

내부는 역대 장관과 지사의 집무실, 홋카이도의 역사 문서를 대대로 모아 놓은 도립문서관과 개척자료 전시실로 사용되고 있다. 역사갤러리에는 북해도 출신 화가가 제작한 개척 내용을 담은 기록회화 20점이 전시되어 있다.

Ⅶ. 종합 시사점 및 제안

홋카이도의 도시는 일본의 전통적인 도시라기보다는 개척기 이후인 메이지 시대와 타이쇼 시대인 근대에 형성된 도시로서 미국에 의하여 서구식 이미지로 개발된 도시이다. 그럼에도 선주민인 아이누민족의 문화와 생활상 재현, 전통의 모습과 근대 건축물의 보존 및 복원은 100여 년 개척기간 속에서 새로운 문화 소재의 발굴과 개발이라는 일본 특유의 이야기와 전통 만들기 한 단면을 볼 수 있었다. 단순히 희미해져가는 전통의 재발굴을 넘어서 지금 시대의 소구자에게 어필할 수 있도록 새로운 틀로 재유형화를 하는 시도를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었다.

① 외관의 개선사업

새로운 시설의 신설보다는 시장이 추구하는 시대성에 걸 맞는 외관으로 보존하며, 신축 시에도 시대적으로 동일한 스타일의 유지가 필요하다.

- ⇒ 간판의 획일화보다는 게시 영역, 수량과 면적의 총량 등 일정한 기준만 정하고 그 외 부분은 상인연합회와 업소에서 개별적으로 구상·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 상가그룹 당 연대감을 확실하게 구분 지어주며, 간판 의존도가 높은 업종의 경우 초과 설치한 간판에 대해서는 시에서 간판세를 징수하도록 함.
- ⇒ 설비의 개선 등 허물고 새로 짓기보다는 적합한 용도의 파악, 개선 방

안, 분위기 연출 등으로 해당 상품 뿐만 아니라 분위기를 판매함.

② 상인자치의 활성화

중앙 정부 및 지자체에서 상인연합이나 개별 업소에 시설 개선비용 등을 지원하는 경우는 드물며 상인연합회 차원의 자발적인 사업과 활동이 원동력을 제공한다.

상인연합이 개별시장 별 마케팅 및 홍보 활동, 시설 개선 및 관리 유지, 시장 아카데미 등 지방 정부의 관여를 최소화 하면서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능력을 배양하여야 한다.

③ 끊임없는 스토리텔링

이야기로 생겨나 이야기로 유지되는 스토리텔링이 일상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야기가 후대에는 전통이나 역사가 됨을 인식하여 스토리를 창출하여야 한다.

⇒ 옛 시장 터나 주요 상업시설 등에 대한 터 찾기, 자료 수집 등 역사나 유래의 발굴

⇒ 장소의 유래에 대한 장소 마케팅의 활성화가 요구

④ 다양한 문화 콘텐츠의 발굴과 공급

시장이야말로 축제가 태동하고 이어져야 하는 대표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이벤트 소재를 지속적으로 발굴 · 개발하여야 한다.

공연거리만으로는 소재의 한계가 있으며 지역적 고유성과 특성이 충분히 가미된 다변적인 소재를 이끌어 내야 한다.

- ⇒ 공연 등 동적인 요소와 정적인 요소의 결합 모색
- ⇒ 먹고 마시는 노래자랑 류의 축제 탈피, 전통의 기점이 될 수 있는 유형 개발
- ⇒ 시군별 공연 이벤트 아이템을 발굴 육성하여 시군 간 교차 지원 시스템 마련

⑤ 개별 브랜드와 광역 브랜드의 결속

홋카이도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나 가공품에는 지(地)자를 앞에 붙여 지역산임을 강조하며, 상품 브랜드나 상호 등에도 지역색을 강조하고 있다.

- ⇒ 예/地酒, 屯田舎, 히구마(불곰) 등을 사용하고 있음.
- ⇒ 타누키코지 아케이트 내 ‘道産食彩 HUG イート’ 브랜드 매장 성황을 이룸.

⑥ 농특산물 유통의 차별화

농협 등의 대형 유통이나 시장 출하 외에 신선도나 생산량이 적은 품목, 생산자의 특색이 강한 상품의 경우 지역 내 유통 체계가 필요하다.

- ⇒ 미즈노엑기나 도야의 미즈노엑기와 같은 지역 인근의 공급 체계의 구축이 외부 방문객을 지역으로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이 됨. CDI



충남발전연구원
2009 해외출장보고서

Part 3.

일본 농촌의 도시민 유치 현장을 가다

유 학 열 _ 공간계획연구부 책임연구원

Part 3.

일본 농촌의 도시민 유치 현장을 가다

유 학 열 | 공간계획연구부 책임연구원

I. 머리말

오늘날 농촌지역에서는 인구 유출과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농촌지역사회의 활력 저하에 대한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전원마을조성사업, 도시민유치프로그램지원사업 등 농촌지역에 젊고 활력있는 인구를 유치하고자 다양한 시책과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실정이 비슷한 일본농촌지역의 자치단체에서도 각각의 지역실정에 맞는 도시민 유치를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우리보다 앞서 추진해 왔다. 도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말 체재형 농원을 조성하거나 은퇴 후 농촌에서 정주하고자 하는 귀촌(또는 귀농)자를 위한 지원사업 및 지원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

일본의 도시민 유치 관련 시책들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측면도 있지만, 지방자치제도의 역사, 국민소득, 농촌생활환경 정비 수준, 주민참여의식, 지역 리더의 층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나라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제도와 시책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본의 경험으로부터 배워야 할 시사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본稿는 일본농촌의 도시민 유치 정책과 관련되는 시책들의 현황 파악과

1) 농림수산식품부·한국농촌경제연구원·충남발전연구원, 2008 「농어촌 뉴타운 조성 관련 일본 사례조사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필자가 재구성 하였다.

2) 효고현은 일본의 혼슈(本州) 서부에 위치하는 현으로 현청소재지는 고베(神戸)시이다.

실제로 추진되고 있는 도시민 유치 현장 시찰을 위해 현지 조사 출장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현지 조사는 2008년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일본의 오까야마현(岡山縣), 효고현(兵庫縣) 일원의 도시민 유치 현장을 방문하였으며 여기에서는 지면 관계상 효고현을 중심으로 ‘효고현의 다자연(多自然) 거주사업’, ‘효고현의 시민농원’, ‘효고현의 樂農생활센터’를 소개하고자 한다.

II. 효고현(兵庫縣)의 多自然거주사업

1) 다자연거주사업의 등장 배경

여기서 말하는 ‘다자연거주’란 “지방의 중소도시 혹은 농산촌지역 내에서도 특히 자연환경이 풍부한 다자연지역에서 주말·휴일을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체재를 하거나 半定住하는 것”을 의미한다.

효고현에서는 1980년대부터 농산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관심을 많이 가져왔는데, 이것에는 효고현이 일본의 다른 현보다 지리적, 지형적으로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 특히, 1995년 고베대지진(한신아와지 지진)이 발생하면서 도시발전의 한계를 인식해 당시 효고현 지사가 도시민의 농촌이주 및 도농상생에 대해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효고현은 도시민의 농산촌 이주 및 새로운 도시민 유치를 통한 농산촌지역 활성화를 모색하게 되었고, 이것을 정책화한 것 가운데 하나가 효고현의 다자연거주사업이라 할 수 있다.

2) 다자연거주사업의 추진 개요

2001년 다자연거주사업을 구상하고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1곳씩 3개소를 선정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도농교류거점 시설 조성을 지원하였으며, 최초로 이루어진 사업은 탄바시(丹波市) 아오가키정(靑垣町)의 거점시설이다.

2005년부터는 다자연거주교류 거점정비지원사업을 실시하여 매년 1개소씩 2010년까지 총 6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 주체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다자연거주 광역활동단체 조성사업을 2006년부터 실시하였으며, NPO 등 관련단체에



[그림 1] 효고현의 다자연거주 안내 포털사이트

3) NPO란 Non Profit Organization의 약자이며, 말 그대로 비영리 단체로 경상이익을 분배하지 않으면서 공익활동을 하는 시민단체라 정의할 수 있다.

는 광역적 활동비용으로 50만엔(약6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비영리단체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효고현 다자연 거주사업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2007년에는 다자연거주지원협의회를 구성하였는데, 여기에는 효고현청과 현 내 10개 지자체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6개 NPO법인은 준회원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다.

3) 다자연거주사업의 지원 내용

효고현에서는 도시민 특성에 따른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여 정주 유형별로 적합한 지원책을 마련하였다. 시정촌(市町村) 여건을 감안하여 도시민의 농촌 정주 유형 가운데 적합한 것을 선별하여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효고현에서 제시하는 농촌 정주 형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① 2지역 거주형, ② 정주형, ③ 영주형이 그것이다.

- 2지역 거주형 : 주말 체재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5도2촌형과 유사
- 정주형 : 도시통근형, 재택근무/SOHO형, 은퇴·연금생활형, 고향취업형(향토산업이나 농림업에 취업하여 가족들이 다자연지역 내에 함께 거주)
- 영주(永住)형 : 지역사회 일원으로 기존 마을 내에 영주

다자연거주추진사업의 일환으로 민간의 활동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시·정 또는 지역과 협력하여 활동하는 NPO 단체나 민간개발업자

4) SOHO란 Small Office Home Office의 약자이며, 작은 사무실과 자택 사무실을 거점으로 하는 근무형태로서 특별한 사무실 없이 자신의 집을 사무실로 활용하는 형태를 뜻한다.

가 도농교류시설이나 전원주택, 전원 체재시설 등을 정비하는 경우, 우선 계획 수립 활동을 지원할 수 있으며, 계획에 근거한 기반정비에 대해서도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이는 약 0.5ha 이상의 구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원주민과 도시민의 융화를 위해 계획 단계의 지원책이 많다는 점이 효고현이 다른 현의 유사 지원책에 비해 차별성을 지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다자연거주사업은 효고현의 독자 사업으로서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후루사토(ふるさと; 고향) 관련 사업 보조금을 다자연거주 사업에 활용하기도 한다. 공영주택 건설, 택지 조성, 교류센터 건설 등에 정부의 보조금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이는 효고현의 도시정책과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농림 분야 부서와 협의 하에 사업이 진행되기도 하며, 그 밖에 중앙정부 국토정책 분야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한편 다자연거주 분야의 여러 사업들은 주로 현에서 예산을 부담하지만, 거점정비지원사업의 경우 현과 시·정 분담 하에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III. 효고현 다까정(多可)의 시민농원

1) 다까정의 시민농원 현황

체재형 시민농원은 농촌에 주거를 정하고 지속적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보다는 주말 체재가 중심이 된 2지역 거주형 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시설이다. 다까(多可)정에는 후로이텐 야치요를 비롯하여 4곳의 체재형 시민농원이 조성되어 있다. 그 중에 야치요(八千代)구의 후로이텐 야치요가 가장 일찍 조성되었으며(1993년 개장), 호응도가 좋은 편이다. 대외적인 지명도 역시 가장 높다. 후로이텐 야치요의 경우 처음에 25동 규모로 사업을 시작하였는



[사진 1] 후로이덴 야치요 전경

[표 1] 다까정의 체재형 시민농원 현황

| 시설명 구분 | 후로이덴 야치요 | 블라이벤 오오야 | 브루멘 야마토 | 클라인가르텐 岩座神 |
|----------------------|---------------------------------|------------------------------|-------------------------------------|--------------------------------|
| 소재지 | 八千代구 | 八千代구 | 八千代구 | 加美구 |
| 완공년도 | 1993년 | 2003년 | 2004년 | 2002년 |
| 사업비 | 약 6억엔 | 약 2억5천만엔 | 약 4억엔 | - |
| 구획수 | 60 | 20 | 30 | 15 |
| 구획부지 | 310㎡ | 190㎡ | 350㎡ | 216㎡ |
| 건물 및 부속시설 | 목조2층(27.8㎡) 농원, 과수, 화단, 주차장 | 목조2층(33㎡) 농원, 과수, 화단, 주차장 | 목조1층(39.7㎡) 농원, 과수, 화단, 주차장 | 목조1층 (56.8㎡/ 69.8㎡) 농원, 주차장 |
| 입회금 | 35만 엔 | 70만 엔 | 77만 엔 | 54~66만 엔 |
| 연이용료 | 276천 엔 | 304천 엔 | 396천 엔 | 540~660천 엔 |
| 부대시설 | 관리동, 교류센터, 공원, 공동농원, 야외무대 | 공동광장, 농기구창고 | 잔디광장, 친수공원, 캠핑장, 소바체험장, 간이숙박동 | 관리동, 농기구 창고 |
| 관리주체 | 후로이덴 야치요 관리조합 | 카사가타자연 공원교류협회 | 야마토체험 교류협회 | 岩座神 다락논 보전추진협의회 |
| 등록대기자 (08. 5월 현재) | 120명 | 20명 | 40명 | 공실 있음 |

*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충남발전연구원, 2008 「농어촌 뉴타운 조성 관련 일본 사례조사 결과」
보고서를 기초로 필자가 재작성

데, 이용자의 반응이 좋아 이후 35동을 추가로 조성하여 임대하고 있다. 주말 체재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이들 시민농원의 이용자는 인근 고베 시민과 오사카 시민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체재형 시민농원은 공통적으로 주거용 건물과 텃밭, 주차장 같은 개별 시설과 관리동이나 교류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후로이텐 야치요의 경우 동당 부지 면적은 310㎡이며, 건물면적은 30㎡이다. 건물은 목조 2층으로서 목욕탕, 화장실, 부엌 등을 갖추고 있으며, 개별 텃밭과 별도로 공동이용 농원도 갖추고 있다.

2) 시민농원의 운영

다까정의 체재형 시민농원은 지자체(町)에서 농림수산성 등 여러 농촌개발 관련 사업을 활용하여 조성하였다. 후로이텐 야치요의 경우 농림수산성 사업인 농촌 생활권정비사업(1기 25동), 신산촌진흥농촌대책사업(2기 35동) 등을 활용하여 시설을 조성하였다. 블라이벤 오오야의 시설 조성에는 교류 공간정비사업비를 활용하였다. 시설 조성 시기에 따라 지원 받은 사업 명칭은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이다.

사업비는 후로이텐 야치요는 약 6억 엔, 블라이 오오야는 약 2억5천만 엔이 소요되었다. 이 중 국비가 약 1/2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지자체(다까정)에서 투자하였다(현의 보조는 없음). 시설 조성에는 평균적으로 약 2년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전체적인 농원시설의 관리 업무는 인근 마을의 주민 조직체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시설 임대료는 농원마다 다소 차이를 보이며, 모두 1년 단위로 임대 계약을 하고 있으며, 임대 계약 시에는 기존 이용자에게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후로이텐 야치요의 경우 특히 인기가 좋은 편이어서 연 2~3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계약을 연장해오고 있다. 전체 60동 중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이용하는 가구도 35호에 이를 정도이다. 현재 대기자가 128명에 이르며, 평균적으로 4~5년 이상은 걸려야 순번이 돌아온다는 것이 운영 담당자



[사진 2] 블라이벤 오오야와 커뮤니티센터

의 설명이다. 관리 비용 등의 이유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입주자들이 주중에는 체류하지 않고 주말에만 머물도록 유도하고 있다.⁵⁾

후로이텐 야치요에서는 다수의 입주자들이 장기 이용자이며 매 주말 거의 빠짐없이 시민농원에 찾아와 머무는 까닭에 입주자들 간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있으며, 친목활동이 활발히 벌어지기도 한다. 주변 마을과 입주자들의 상호 교류 정도는 4개의 시민농원이 모두 다른데, 다른 3곳에 비해 비교적 오래 전에 조성한 후로이텐 야치요의 경우는 지역 주민들과 입주자들이 주말에 맞추어 공동으로 각종 행사나 이벤트를 벌이기도 한다.

IV. 효고현의 樂農생활센터

1) 樂農생활센터의 개요

樂農생활센터는 행정구역상 고베시 서구(西區)의 도시 근교부에 위치하고 있다. 각종 농업·농촌 체험시설과 농장, 과수원, 가공시설, 레스토랑, 직판장, 농업 연수시설 등이 복합되어 있는 거점시설이며 규모는 약 14ha이다.

5) 후로이텐 야치요에는 예외적으로 주중에도 체류하는 가구도 있다고 함



[그림 2] 낙농생활센터의 주요 시설 배치도

樂農생활센터는 도시민에게 농업을 체험하고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거점시설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며 아울러 농업활동에 실제 참여하려는 사람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교육시설로 활용하는 목적도 지니고 있다. 지산지소(地產地消) 개념의 레스토랑 운영을 통해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도시민에게 제공하고 지역의 먹을거리의 중요함을 인식하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2) 樂農생활센터의 주요 시설

樂農생활센터에는 다양한 도농교류 및 농촌 체험시설들이 구성되어 있다. 그 현황을 시설별로 정리하여 아래 <표 2>에서 보여주고 있다.

먼저 농업 체험시설로 가족 단위 농업체험을 위한 논이 있다. 이는 100가족(400명)이 체험 가능한 면적이다. 가족 체험 농장 회원이 되면 수확 때까지 연 5회 이상 방문해야 하며, 맡은 구역은 가족 단위에서 완전히 마무리해야 한다. 그 밖에도 채소 재배장, 꽃을 재배하는 온실 등에서도 각종 농업체험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표 2] 낙농생활센터의 주요 시설 및 운영 현황

| 구 분 | 시설 명 | 관리운영 주체 | 2007년 실적(방문 또는 체험) |
|--------------|---|--|--|
| 도농교류 시설 | 농기구전시장 가공시설동 레스토랑 농산물 직매소 | (주)トーホー 농가조직(가공부) (주)トーホー 농가조직(직판부) | 무료 견학 113회 2,166명 113,953명 41,655명 |
| 농업농촌 체험시설 | 간벌체험장 과수원 버섯재배사(주) 기초 농업체험장 가족 농업체험장 (수도작) 채소재배체험장 화훼재배체험온실 | (주)トーホー (주)トーホー 효고녹색공사 효고녹색공사 (주)トーホー 주민협의회 | 11회 207명 2010년부터 예정 3회 93명 55명 88가족 14회 494명 1회 9명 |
| 교육시설 | 신규귀농자 연수장 학교관리동 | 효고녹색공사 효고녹색공사 | 귀농 20명, 수료 25명 |
| 기 타 | 관리연수동 | 효고녹색공사 | |

자료 : 樂農생활센터 안내자료를 필자가 번역

체험장에서 생산한 제품은 센터 내에 있는 농산물직판장에서 판매하거나 레스토랑의 재료로도 사용된다. 다른 지역의 농업 체험장의 경우 생산된 농산물이 너무 많아서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樂農생활센터에서는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주요 체험시설은 장애인도 제약을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을 적용하였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과수원에 가서 수확 체험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레스토랑의 음식은 제철 채소 중심의 식재료를 활용하여 제공하며, 지산지소(地產地消) 원칙으로 재료를 공급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재료의 30%는 센터 내 농장 및 인근 고베 권역 내에서 공급하며, 20%는 효고현 내의 재료를 활용하는 것이다. 다른 현의 재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50% 정도가 된다. 체험농장이나 가공시설에서 생산된 식재료 역시 레스토랑에서 소비한다. 음식물 쓰레기는 100% 퇴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퇴비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폐식용유 역시 바이오디젤로 재활용하여 트랙터 등에 일부 사용하고 있다.



[사진 3] 지산지소 방식의 레스토랑(좌)과 주민이 운영하는 직판장(우)

방문객에게는 일정한 금액을 받고 가공체험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체험 재료는 지역에서 제공하며, 만든 제품은 참가자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체험 프로그램은 대개 주말 위주로 운영하며 2007년 한 해 동안 약 2천 명이 참여한 바 있다.

3) 樂農생활센터의 관리 운영

낙농생활센터의 제반 시설 조성은 효고현에서 담당하였으며, 체험시설물 등의 전반적인 유지·관리는 효고현에서 설립한 ‘효고녹색공사’(兵庫みどり公社)가 맡고 있다.

시설별로 민간 주식회사 및 주변 마을의 지역자치회 조직에서도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주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시설들이 그러하다. 슈퍼마켓 전국 체인인 (주)ト一ホ一에서는 간벌체험장, 버섯재배관, 레스토랑, 채소 재배체험장 등의 운영에 참여한다. 과수원, 농기구 전시장 등도 민간 업체에서 운영한다.

주변 지역 주민들이 직접 운영토록 하는 시설들로는 가공장, 농산물직판장 등이 있다. 가공시설동은 인근 농가 20호가 참여하는 가공부 조직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가공부는 두부, 각종 반찬, 딸기잼, 빵이나 쿠키 등을 제조하는 4개 그룹으로 이루어진다. 농산물직판장인 낙농시장(樂農市場)은 농가 주부

40인이 참여하는 모임인 직판부에서 운영을 담당하고, 강의시설, 신규 귀농자 연수시설, 가족 대상 농업체험장 등은 공사에서 운영한다. 체험온실 등의 운영에는 지역 협의회도 일부 참여하고 있다. CDI



충남발전연구원
2009 해외출장보고서

Part 4.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 가나자와(金澤)

이 충 훈 _ 공공디자인센터장

Part 4.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 가나자와(金澤)⁶⁾

이 충 훈 | 공공디자인센터장

1. 가나자와

1. 가나자와시 현황

가나자와시는 지정학적으로 일본의 중간 지점인 호쿠리쿠(北陸) 지방에 위치하고 있고, 약 45만의 인구를 가진 정치·문화·경제의 중심지로서 해안 도시이다. 가나자와는 사찰마을이나, 성(城)을 중심으로 발달된 도시 형태를 가지고 있어 전형적인 일본의 중세도시로 분류된다.



2. 가나자와시 경관정책

가나자와시의 경관정비는 단순히 관광객의 증가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주민의 생활향상, 환경미화, 문화예술, 기회창출 등 정주환경으로서 쾌적한

6) 본 연구는 충남공공디자인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일본 현지 자료조사를 위해 '09년 6월 19일~23일까지 가나자와, 다카야마, 시라카와고를 방문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

환경조성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

가나자와는 제2차 세계대전 중 공습을 받지 않아 전통도시로서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인구의 유출이 매우 적고, 공간구조의 원형이 거의 그대로 남아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장점을 지키기 위해 일본 최초로 “전통환경보존조례”를 제정하였고, 지역 특성을 살리고 개성있는 역사문화 경관을 보호 및 유지하고 있다. 또한, 활성화된 전통산업을 기반으로 관광산업과 연계된 지역경제를 구축하고 있다.

경관정책의 기본방향은 전통건축물과 현대적 건물과의 조화를 이루는 개발과 보존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옛마을 풍경을 보존하면서 동시에 신도시 개발을 병행하는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도시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가나자와시의 도시경관관리의 특징은 크게 2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첫째, 과거의 흔적을 보존하려는 지속적인 노력과 실천적인 정책의 추진, 둘째, 시민과 사업자에 대한 이해와 설득을 위한 합리적 프로세스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다.



[그림 1] 가나자와 경관 구조

역사문화경관 관련 조례 제정 현황은 다음과 같다.

1968년 전통환경보존조례, 1974년 문화재보호조례, 1977년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 보존조례, 1989년 전통환경보존 및 아름다운경관 형성에 관한

조례, 1994년 코마치나미 보존조례, 1997년 사면녹지보존조례, 2002년 조망경관보존조례, 사찰풍경보존조례, 2005년 야간경관보존조례, 가로경관보존조례 등

1) 옥외광고물 조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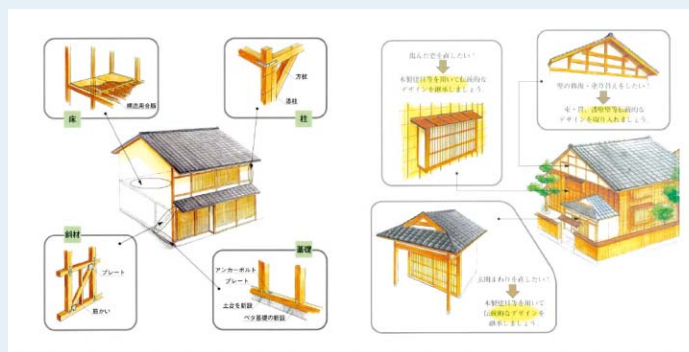
아름다운 경관 유지를 목적으로 옥외광고물 관련법규를 제정했는데, 매주 1회 광고물 심의회를 개최하고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은 없으나, 심의회에서 개선을 유도시키고 있다.

녹색지역의 경관에서는 건축물의 색도 동일하게 유도하고,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색채를 가나자와 지역에 맞게 적용하도록 하며, 강제성은 없으나 주민의 90% 정도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야간경관지역에서 상업지역은 밝게, 그 외 지역은 어둡게 조절하도록 한다.

2) 마찌즈구리 협정 - 마을가꾸기

바닷가와 시내도심의 사인형태는 구분하여 설치된다. 그리고 주민이 참여하는 경관형성사업은 고속도로 주변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청소를 하며, 시에서는 청소도구 및 음료수, 타올 등을 지원한다.



[그림 2] 건축물 복원 매뉴얼

가나자와 주변 환경의 조화를 위한 도로표식을 개선 및 도로 주변 환경에 조화를 이루기 위해 안내표식 개선, 문자축소, 안전성 검토, 안내사인의 크기를 축소한다.

그리고 가나자와 마을 가꾸기 중심에서 시 전체로 확대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특히 설계자(연출가) - 시민(주역) - 사업가(기업, 지역단체, NGO) - 시(행정, 조정자 역할)가 협력을 통해 활동한다.

3) 건물개선 디자인 제시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건물디자인 개선방안 제공하고 홍보를 통해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4) 색채기준

원색(R, Y, YR), 형광색 등 금지색을 지정, Y계열에서 채도가 4를 초과하여 사용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시 경고 및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원색(R, Y, YR) 이외의 색은 채도 2를 초과하지 못한다. 상표의 원색 면적이 넓은 경우 건물의 20% 이상 면적을 초과하지 못한다.

전통건조물이나 자연소재에는 착색을 금지하고 있으며, 목조건조물이 많아 나무색(소재색)을 권장한다.

그리고 금지색인 노랑, 보라, 적색계통의 색은 자연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5) 경관서포트 제도

가나자와시는 시민과의 경관학습, 경관교육을 통해서 협력관계를 이뤄나가고 있다. 그리고 같은 지역에서 주민들이 사진 촬영을 통해 개선효과 여부를 측정하는 평가방법을 모색한다.

3. 가나자와 지역 활성화사업과 공공디자인 전개

1) 세계도시 구상과 도심 르네상스 계획

메이지유신 이후, 근대화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가나자와는 이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의 폭격이나 피해로부터 무사할 수 있었지만, 쇠락한 시골마을로 전락할 위기를 맞이하였다.

대도시로의 인구이동, 중심지의 상업화를 비롯한 급격한 지가 상승을 비롯한, 공공시설의 교외이전, 대형할인점의 진출, 자동차 증가에 의한 교통체증 및 환경오염 등은 지금까지 중심시가지가 길러온 다양한 도시기능이 저하된 것이다.

이러한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가나자와 시는 1995년 ‘가나자와 세계 도시 구상’을 계획하고, ‘도심 르네상스 추진본부’를 설치하여 가나자와의 중심시가지 활성화를 최우선 중요시책으로 지정하였다.

이는 대규모 도심의 급속한 성장보다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고 활용하여 도시의 성장과 발전에 있어 중심시가지의 활력과 매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다.

① 제1차 기본계획 (1998년~2003년)

- 테마 : 발전과 전통이 조화된 활력있는 중심시가지 형성
- 기본방침 : 역사, 문화, 자연을 활용하여 매력 있고, 활기 있는 ‘걷는 마을’ 만들기
상점가의 특성을 살린 상업 환경 형성
- 도시기반 정비 추진에 의한 활기 창출

② 제2차 기본계획 (2004년~2008년)

- 테마 : 마을안의 주거와 교류의 촉진
개성을 살린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생활의 즐거움을 실감하는 정착 추진 건강한 상점가, 도심 비즈니스의 형성 마을 안의 교류활동

가나자와는 지역골격을 유지하
는 가나자와성과 겐로쿠엔, 그리
고 이것을 둘러싼 수로와 조망을
배려한 도로 등 역사적인 도시구
조를 비롯한 중심시가지에 많이
남겨져 있는 문화적 유형 자산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예능, 전통



[그림 3] 가나자와 시청 도시정비국 브리핑

공예 산업기술로 이어지는 무형자산 등 가나자와의 전통문화가 새롭고, 현
대적인 것과의 조화를 이루고, 활기차게 사람이 살고, 모이고, 어울리는 도
시,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도시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한 실천방안은 가나자와의 개성을 살린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과 활
기·교류가 넘치는 중심시가지를 추진하는 것이다.



[그림 4] 겐로쿠엔 정원 입구(좌)와 정원 내부(우)

2) 경관 및 가로환경 정비사업

① 전통 환경보존지구 정비사업

지역 특성을 살리고 개성있는 역사문화경관의 보호와 유지를 위해 ‘전통환경보존조례’를 제정하였다. 이 조례에 근거하여 조망경관보존구역 내 고층 건축물 제한 등 각종 건축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설계자가 직접 경관 진단서 및 경관 시뮬레이션을 작성하여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도록하고 있어 공간변경으로 야기되는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가나자와시는 혜택받은 자연과 지형을 배경으로 중심시가지의 약 절반 이상을 ‘전통 환경 보존지역’ 및 ‘근대적 도시경관 창출지역’으로 지정하고 개발과 보존이 조화된 아름다운 지역 만들기를 가로경관 측면에서 추진하고 이에 따른 정비를 진행하였다.

2006년 3월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간판정비 지구를 위한 기본방침을 마련한 이후, 경관과 교통의 안전성을 중시하면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가나자와만의 도로 표식 간판설치를 추진하였다. 또한 전통 환경을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을 전통 환경 보존 지구로 정하고 근대적 도시경관 창출에 필요한 각 지역의 건축물 및 조형물의 규모, 위치, 색채, 의장 등에 관한 기준을 수립하여 시의 개성이 풍부한 아름다운 경관 형성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고마치나미’의 ‘고’는 ‘역사적 경관과 정서를 지닌 가로’를 뜻하는 ‘古’와 ‘작다’는 의미의 ‘小’를 모두 포함하는 말로서, ‘고마치나미’(小町並み)라는 이름의 사업을 통해 역사적으로 가치를 지니는 사무라이 가옥, 옛 가옥, 사원 등 건축물이나 유사 양식을 계승한 건축물이 모여 있어 역사적 가치가 높은 골목이나 생활과 경제활동의 장소로서 가나자와만의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경관을 정비했다.

고마치나미 사업은 ① 보존이 필요한 가로를 ‘고마치나미 보전구역’으로

지정하여, ② 지역 특성에 맞는 ‘보전 기준’을 정하고, ③ 보전구역에서는 신축이나 개축이 필요할 경우 사전 협의를 통해, ④ 시가 개축과 수리비용의 최대 70%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구역 내의 역사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건물은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 ‘고마치나미 보전 건조물’로 등록하고, 시와 소유주가 보전계약을 체결하고, 구역 지정과 보전 기준은 주민과 전문가(대부분 가나자와 내부 전문가)로 구성된 ‘고마치나미 보전위원회’를 중심으로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문화가 일상에 흐르는 가나자와를 만들기 위한 성숙한 주민의식을 높일 수 있었다.

골목에 문화의 손길이 닿아 골목이 다시 활기를 띠고, 진정한 의미의 공간으로 자리 잡은 고마치나미 사업의 가장 대표적인 곳이 히가시차야 도오리(東茶屋通り)다.



[그림 5] 히가시차야 도오리(東茶屋通り) 지구

히가시차야 도오리는 가나자와의 대표적인 관광지이자 이미지 공간이다. 이 거리는 가나자와의 이미지에 어울리는 공간으로, 일본 전통차, 가가유젠(加賀友禪, 일본 전통의상 염색법), 금박(金箔), 구타니 자기(九谷焼) 등 지역 특산물을 파는 거리로 재정비되었다.

이 과정에서 건축·조경·마케팅 전문가가 투입되어 건축물의 높이, 지붕의 형태와 재질, 외벽의 색채와 재질, 외벽의 위치, 식재(植栽)와 문이나 울타리 등의 조성, 외부로 드러나는 설비기기 지침, 옥외 광고물과 차양 등의 설치 지침을 마련하고, 업종 선정과 인테리어, 마케팅 관련 노하우를 전달했

다. 또 간판·안내판·안내지도 등의 공공 사인 디자인 등의 경관을 정비해 전체 경관의 조화를 추구하고, ‘걸으면서 문화를 느끼는’ 골목을 만들었다.

② 지역 보행 공간 정비사업

지역 내 벤치나 화장실, 식재 등 시민과 관광객들의 걷기 쉬운 보행환경 정비 추진사업으로 가나자와 내에서 보행자 및 공용교통 우선 정책을 진행하여 가나자와 성을 중심으로 지역 특유의 역사유산이나 상점가를 즐기며 둘러볼 수 있도록 했다. 물론 지역의 특성과 이미지를 최대한 반영하는 디자인으로 주변 지역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였다. 가나자와 무사 가옥 주변의 공중전화 박스와 공중화장실은 옛 무사가옥의 구조와 재료를 적용하여 주변과 조화를 이룬다.



[그림 6] 공간, 시설물(인도, 볼라드)

③ 아트퍼니처 설치

가나자와 시의 아트퍼니처 설치에 문화예술이 살아있는 가나자와의 특성을 살리려는 시의 정책으로 가나자와 역에서 21세기미술관을 잇는 가로축을 중심으로 예술성있는 조각작품 및 공예작품을 설치하였다. 이를 위해 세계 각국에서 공모한 뛰어난 조각작품을 설치, 기업의 쇼윈도우에 학생들의 작품을 전시함으로써 지역 전체에 즐거움과 활력을 부여하였다.

④ 가나자와 시냇물 정비사업

가나자와시 대로상의 정비에 따라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하는 도심축 보행공간의 정비는 사람들에게 편안함과 친근함을 느낄 수 있는데 주안점을 두고 물, 녹음 등 자연의 요소를 최대한 활용하여 쾌적한 보행공간을 창출하였다. 특히 예부터 내려오는 가나자와시의 전통 수로를 적극 끌어들이어 시냇물이 흐르는 도심의 쾌적함과 여유로움을 더욱 높였다.



[그림 7] 가나자와 수로(좌)와 가나자와 무사촌에 조성된 수로(우)

⑤ 자원을 낭비하지 않는 조밀한 구성

지역의 공공디자인 개발은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보행 공간 내에서 여러 가지 요소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자원을 순환시키면서 지역사회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조밀한 구성은 각각의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고, 물, 바람, 녹음 등 풍부한 자연과 이들 요소가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이어지고 유지되어 이러한 지역 환경 속에서 질 높고 풍부한 거주공간과 쾌적함이 나온다.

가나자와 시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중심의 도로정책을 통하여 지역의 활력과 매력을 증진시키고 이를 통하여 자동차 통행의 감소시켜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유도하였다. 또한 에너지



[그림 8] 차도와 인도의 턱이 없는 보행자 중심 공간

절약 및 활발한 지역 교류활동을 가져왔다.

따라서 지역공간에서 보행자 중심의 보행권 확보는 매우 중요한 공공디자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스트리트퍼니처 디자인에 지역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소재나 형태를 적용하는 것은 지역 경관을 구성하는 하나의 큰 축이 될 수 있다.

가나자와시는 전통 환경 보존 지역을 설정하고 그 지역의 가로 시설물에는 가나자와 전통 건축물의 구조 및 소재, 패턴 등을 적용하여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고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게 하였다.



[그림 9] 가나자와 성주변 공원(좌)과 음성정보 신호등(우)

가나자와 시는 특히 중심시가지에 사람을 불러 모으고 지역의 매력을 재발견할 수 있는 기회 창출 및 시민들의 문화, 예술의 새로운 창작활동의 장을 제공하는 시민 교류 활동에 큰 중점을 두고 있다.

지역교류 활동사업으로는 마에다 자료관, 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 가나자와 문예관, 가나자와 노카쿠 미술관 등 교류 활동 시설을 개설하고 이들 문화 시설에 있어 합동기획전 전개 및 공통입장권 발행을 통하여 관광객의 회유성 유도 및 시민 참여활동을 유도한다.

시가 앞에서 끌고 시민이 뒤에서 미는 전통 문화 보존 정책과 시민들의 3분의 1을 아마추어 예술가로 만들 만큼 잘 갖춰진 문화적 인프라는 ‘문화 도시’ 가나자와 시를 만드는 밑거름이다.



[그림 10] 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

가나자와 시를 진정한 문화 도시로 만든 것은 시민예술촌이다. 시는 방직 공장이 폐쇄되면서 남은 9만7,000㎡에 이르는 광대한 부지를 사들여 지난 1996년 시민들을 위한 문화 공간으로 개방했다. 설 새 없이 돌아가는 기계가 들어찼던 공장은 문화 공연을 위한 연습실로 탈바꿈 했고, 주차장은 미술 작품공간과 공원으로 변신했다.



[그림 11] 가나자와 시민예술촌

예술촌은 시민들이 시간 제약을 받지 않고 편하게 쓸 수 있도록 365일 24시간 개방한다. 사용료도 6시간에 1,000엔에 불과하다. 직원은 밤 9시 30분 까지 근무하고, 이후로는 시민 들이 자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4. 시사점

지역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있어 지역의 다양한 관계 주체와의 합의 형성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즉 지역의 요구를 충분히 이해하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함께 세우면서 적극적으로 합의 형성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역사와 문화를 기반으로 한 매력 있고, 활기 있는 ‘걷는 마을’ 만들기과 상업점가의 특성을 살린 상업환경을 형성하는 창조도시를 조성함은 물론, 자연의 요소를 공공디자인에 활용하여 도시의 쾌적성을 높였고, 가로 시설물에 지역전통 건축물의 구조, 소재, 패턴 등을 적용하여 지역의 특성을 살렸다.

가로공간의 기능성·시각성·기호성·무대성 이외에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문화생활을 반영하고 우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프라 정비, 환경미화 차원에서 아름다운 골목을 수동적으로 향유하기보다는 많은 주민과 방문객에게 쾌감과 감동을 주고, 그것이 생활향상, 문화예술 기회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II. 다카야마

1. 다카야마시 현황

다카야마는 기후현[岐阜縣]에 속해 있으며, 일본열도의 가장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인구 9만 7,000명의 소도시다. 에도시대에 지어진 격자창의 가옥들과 전통적 산촌풍습이 고풍스럽게 남아있어 ‘작은 교토’라고 불린다.

메이지[明治]유신(1868) 이후 여러가지 변천을 거쳐 1936년에 다카야마시

가 되었으며, 그 후 여러 행정구역들과 통합된 후 2005년에 주변 9개 구역과 통합, 도쿄도와 비슷한 면적을 가진 큰 도시가 되었다.

2. 다카야마시의 도시디자인 정책

1) 베리어프리디자인

다카야마 시는 '살기 편한 도시는 놀러가기 편한 도시' 라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하여 장벽없는 도시공간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 노약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관광도시가 되도록 장벽 제거를 위한 시책에 주력하고 있다.

다카야마시에서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편리성을 높이고 또 사람과 사람, 사람과 지역이 서로 교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의 원활화 및 정보에서의 장벽 제거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 장벽 없는 도로 만들기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을 위해 차도와 인도 간 턱이 5cm이상인 곳을 2cm이하로 낮추거나 없앴으며, 네거리 등에서도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도로 옆 빗물받이 덮개 창살은 휠체어나 유모차 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1cm



[그림 12] 보행자를 위한 트렌치 시설(좌)과 인도와 차도의 턱 제거(우)

이하로 촘촘하게 좁혀 안전성을 높였다.

3) 휠체어 대응 화장실 설치

시가지에는 깨끗하고 휠체어를 탄 사람도 이용할 수 있는 공중 화장실이 40개 이상 설치되었으며, 호텔, 레스토랑 등에서도 휠체어 대응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인공배설기를 단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도 9개를 설치하였다.



[그림 13]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 설치

4) 관광지 도로표시

시내 도로 주요 위치에는 일본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번체, 간체) 등 4개 국어로 된 표시판을 설치하여 편리성을 높이고 있다.



[그림 14] 방문객을 위한 정보서비스 픽토그램 설치

5) 길거리의 벤치

시가지 중심부에는 많은 벤치를 설치하여 쉼터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15] 길거리 벤치 설치

6) 이동수단 지원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승하차 보조기구를 구비하거나 휠체어에 대응 가능한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3. 전통건조물 보존지구

다카야마는 오래된 마을의 모습이라는 뜻의 ‘마쓰나미’를 지역의 중심적인 가치이자 상징으로 삼고 있으며, 전통의 다양함이 마을의 모습에서 펼쳐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다카야마 시내에 흐르는 미야가와[宮川]강 동쪽에는 전통건조물 거리가 남아 있으며, 그 중에서도 에도시대의 집들이 남아 있는 것이 산마치(이치노마치, 니노마치, 산노마치) 지역으로서 성곽도시인 다카야마의 모습을 가장 많이 남기고 있다.

술 양조장과 격자집들이 이어진 곳으로 이 지구는 국가로부터 중요 전통적 건조물군으로 지정되었다.

다카야마는 도시전체가 전통집과 거리로 채워진 것은 아니며, 현대적인 거리에 옛길의 흔적을 살리기 위해 안내서인과 이정표를 설치하였다.

현대적인 생활과 기반시설을 영위하면서도 도시 전체가 옛길과 어우러진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과거에서 현재까지 이어져온 지역의 모습에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녹아들어 지역적 자원과 활력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림 16] 전통건조물 보존지구

Ⅲ. 시라카와고

1. 시라카와고의 전통가옥

시라카와고의 전통가옥인 갓쇼즈쿠리(合掌造)는 두 손을 합장한 모습의 가옥형태를 띠고 있다. 역사적으로 엮은 집 내부에는 3, 4층으로 나누어져 양쪽에 이용되었으며, 갓쇼즈쿠리 가옥은 에도시대 말부터 메이지시대에 걸쳐 조성되었다.

1976년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 중요전통건축물보존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1995년 유네스코 세계 유산 취락지구로 지정되었다.

갓쇼즈쿠리 가옥의 지붕보수비는 국비(90%), 현(10%), 마을(25%)의 비율로 공동부담하고 있으며, 보존을 위한 디자인 가이드라인 계획서를 토대로 건축물의 신축 및 보수, 크기 및 색채 등을 준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CDI



[그림 17] 시라카와고 전경(여름:좌, 겨울:우)



[그림 18] 갓쇼즈쿠리 내부 모습

[그림 19] 시라카와고 마을



[그림 20] 시라카와고 안내사인, 맨홀, 마을골목길



충남발전연구원
2009 해외출장보고서

Part 5.

영국 도시재생 성공사례 조사 보고서

김 정 연 _ 도시재생연구센터장

조 수 희 _ 도시재생연구센터 전임연구원

Part 5.

영국 도시재생 성공사례 조사 보고서

김 정 연 | 도시재생연구센터장 · 조 수 희 | 도시재생연구센터 전임연구원

I. 조사개요

1. 조사목적

- 영국의 지방도시재생 성공사례 도시 및 전문가·관계기관 인터뷰 등을 통해 우리나라 지방도시 재생계획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해 필요한 정보 조사
- 영국에서 도시재생 관련 연구를 꾸준히 수행하고 있는 Urbanplasma 연구소를 방문하여 의견 교환 및 자료수집

2. 조사내용

- 도시재생, 특히 지방중소도시에서 성공적으로 추진된 사례를 조사
- 도시재생 추진을 위해 계획의 수립 여부 및 수립과정을 조사
 - 계획수립 지침, 계획 내용, 계획 수립 과정의 문제점 및 해결방



[그림 1] 영국 지도

법, 계획의 현실화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해결방법, 계획 실현의 평가와 수정방법, 추진체계

- 영국 중소도시 재생 전문가와의 토론(한국의 도시재생 현실과 연구내용을 설명하고, 영국의 경험과 자문을 통해 도입가능한 대안 마련)
- 도시재생계획 수립에 활용할 만한 정부 지침 및 연구자료 수집

3. 조사기간 및 조사지역

- 조사기간 : 2009년 10월 5일 ~ 13일(8일간)

| 일 자 | 조사지역 | 조사기관 | 인터뷰자 |
|--------|------|--|---|
| 6일(월) | 버밍햄 | Birmingham City Centre | Andrew Round (City Centre Development Manager) |
| | 캐슬베일 | Castle Vale 자치센터 | Ian Bingham (neighbourhood coordinator) |
| 7일(화) | 세필드 | Creative Sheffield | Neil Burgin (Assitent Director) |
| 8일(수) | 맨체스터 | City Centre, Hulme Regeneration | Ruth Ashworth & Sue Ahmadi (Planning Officer) |
| 9일(목) | 리버플 | European Institute for Urban Affairs | Professor Michael Parkinson |
| 10일(금) | 뉴캐슬 | One North East, RDA | Robin Beveridge |
| 11일(토) | 도크랜드 | Isle of Dogs, Royal Dogs 등 4개의 Dogs 중심으로 현장답사 | |

II. 인터뷰 및 답사 결과

1. 버밍햄(Birmingham)

1) 버밍햄의 도시재생

○ 버밍햄시 도시재생사업의 배경

- 버밍햄시는 잉글랜드 중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18세기부터 영국의 전형적인 산업도시로 성장
- 2차 대전 이후 도시재건 사업이 이루어졌고, 1960년대 전형적인 자동차 중심의 도시구조를 형성. 도심 가운데 순환도로와 자동차중심 도로는 기존 도심의 정체성을 약화시켰고, 자동차 도로에 의해 분절된 형태의 구조를 갖게 됨
- 1970년대 산업구조 변화에 의한 제조업의 쇠퇴와 실업은 시를 쇠퇴시킴
- 1980년대 후반, 시는 자동차 중심의 분절되고 침체된 산업도시의 물리적 구조를 사람중심의 보행환경과 공공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으로 1987년 'City Centre Strategy(도시디자인 전략)'를 작성, 1988년 'Highburty Initiative(국제도시설계 심포지엄)'을 개최

○ 버밍햄 도심재생사업의 성과

- 1980년대 후반, 20년간의 버밍햄시 도심재생사업 성과는 서쪽의 ①



[그림 2] 브린들리 플레이스(좌) & 불링(우)

브린들리 플레이스(Brindley place)와 동쪽의 ② 불링(Bull Ring)의 성공으로 결론지어짐. 두 지역은 지속적으로 진행된 보행화된 가로체계로 연결시켜 버밍엄 도심공간의 '장소성'을 창출하고 버밍엄시의 '도시 정체성'을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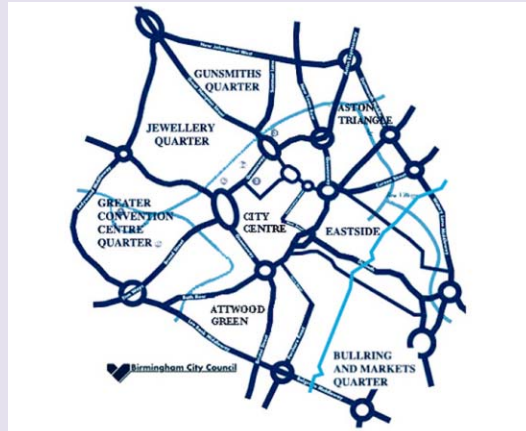
[그림 3] 불링의 쇼핑센터

2) 인터뷰 및 현장조사 결과

○ 지방정부가 도시쇠퇴를 인식하고 문제를 제기

- 제조업의 쇠퇴와 함께 급격한 인구감소로 도심 슬럼화와 경제침체, 사회적 박탈 등의 문제를 발생시켰는데, 특히, 시티센터는 외부순환 도로(Ring Road)에 의해 도시 내·외부를 단절시킴으로써 내부 경제 성장을 악화시킴

○ Master Plan을 통한 전략 수립

[그림 4] 7개 지구 (자료 : www.birmingham.gov.uk)

- 지구별 도시디자인 전략으로써 기존 도심의 ① 물리적 구조 재정비를 통한 ② 도시 이미지 변모와 ③ 정체성 확립을 위한 'City Centre Design Strategy(1990)'를 작성하여 버밍햄 도시를 City Center 중심으로 7개 지구로 나누어 지구별로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 지침을 작성함. 또한, 각 지구별 특성에 맞는 효과적 전략을 수립
- 광장, 보행로, 가로체계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킴에 있어 토지강제수용 (City Council의 CPO제도)을 통해 도로는 지하, 보행로는 지상으로 변경시킴



[그림 5] 버밍햄 시청 담당자와의 인터뷰



[그림 6] 지상의 차도를 지하화하고 보행로 조성

○ 공공이 먼저 투자한 후 민간의 투자를 유발시키는데, 민간 또한 광장 등

공공시설 및 공간에 대해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함

- 또한, Design을 중시하고 있는데, 공공건물의 경우 시정부에서 혁신적인 건물을 수용하고 그것을 통해 디자인의 질을 높이고 있으며, 시 차원에서 디자인팀을 운영하고, 시티센터 디자인 팀이 관여하고 있음. 민간 건물의 경우에는 도시계획 Process를 통해 양질의 디자인 건축물을 유도하고 민간이 선호하는 건축가에게 의뢰하여 자유성을 부여



[그림 7] 라운드 어바웃을 광장화함

2. 캐슬베일(Castle Vale)

1) 캐슬베일의 도시재생

- 캐슬베일 도시재생사업의 배경
 - 1900년대 초까지 높은 실업율과 범죄율로 슬럼의 이미지가 남아 있고, 1960년대 후반 주거용 택지개발이 일어났으나, 고층의 타워블록으로 인해 주민의 건강 및 난잡한 주거환경을 야기 시켰음
 - 1988년 제정된 주택법(Housing Act)에 따라 1993년 물리적 재개발과 더불어 지역주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캐슬베일 HAT(Housing Action Trust)가 설립되고, 도시재생 프로그램이 실행에 옮겨지게 됨

- 캐슬베일 HAT는 1993년 낙후된 도시의 재개발을 목적으로 투표를 실시, 지역주민 92%의 찬성표를 얻어 설립되었으며, 1994년 도시재생프로그램이 버밍험 시의회에서 HAT로 이입됨
 - HAT는 지역의 재생사업을 위해 결성된 부총리 직속기관을 통해 중앙정부가 세운 한시적인 조직으로서 2005년까지 12년 동안 프로그램을 수행함
 - 범죄의 온상이었던 노후된 타워블록을 철거하고, 지역주민들의 생활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편리한 구조로 캐슬베일 전체의 레이아웃을 변경하는 등 캐슬베일 HAT의 재생프로그램은 전체적 프로그램이며 총괄적 프로그램의 성격을 띠

2) 인터뷰 및 현장조사 결과

- Castle Vale HAT를 통한 도시재생
 - HAT는 지역 재생사업을 위해 결성된 부총리 직속기관을 통해 중앙정부가 세운 한시적인 조직
 - 도시쇠퇴의 심각성을 느낀 주민의 92%가 HAT로 소유권을 이양하였음
 - HAT는 12년 동안, 물리적 환경 개선에 집중하지 않고 Health, Environment, Employment, Education & Training, Community Safety 등을 동시에 진행했으며, 현재 대체기관이 생성되어 도시재생을 진행하고 있음
- 주민커뮤니티 생성



[그림 8] 캐슬베일 지역코디네이터와의 인터뷰

- 초기에는 주민대표를 노동조합을 통하였으나, 이후 주민들 중 젊은 사람들이 대표하기 시작함
-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유대감 형성을 위해 축제, 건강 커뮤니티, 단체 여행, 활동, 젊은이 이벤트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주민커뮤니티 주요 자금은 공공에서 부담하고 있음
- Regeneration Strategy의 성과
 - 커뮤니티 자체 경찰 26명이 방범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치안과 관련, 경찰과 직접 연결을 통해 범죄율을 감소시킴
 - 1993년 26%, 2005년 5%로 감소되었으나, 최근 세계적 경제침체로 인해 11%로 다시 상승함
 - 쇼핑센터 및 커뮤니티 시설, 공원 등을 건립하면서 이주희망 가구 증가

3. 셰필드(Sheffield)

1) 셰필드의 도시재생

- 셰필드 도시재생사업의 배경
 - 산업혁명 이래 철강산업의 쇠퇴, 맨체스터 및 리즈 등 주변 도시와의 경쟁력 약화, 도시 외곽지역의 무분별한 개발로 심각한 도심부 및 도시 쇠퇴
 - 1984년 지식정보산업, 정밀기계산업, 관광·문화산업, 현대형 레저산업 등을 선정하여 집중 육성
 - 1980년대 후반, 교외형 대형쇼핑센터인 메도우 홀(Meadowhall) 유치, 도심부 외곽의 유흥산업지구인 로어 돈 밸리지구 재개발을 포함하여 4개의 기함 프로젝트(Flagship project) 추진

- 1994년 도심업무기본계획(City Center Business Plan)을 수립하여 도심부 정비 및 관리를 위한 기반조성 착수
- 2001년 도심종합개발계획(City Center Intergrated Development plan)을 수립하여 도심부가 도시경제 활성화 및 지역혁신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함
- 2001년 Sheffield One을 결성하고 셰필드 시 도심정비기본계획(City Center Masterplan)을 수립
- 2007년 셰필드 시 도심부의 물리적 재생을 담당한 Sheffield One,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한 Sheffield First for Investment, 셰필드시 도심부 문화산업지구의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역할을 해 온 Cultural Industries Quarter Agency(CIQA)가 통합된 Creative Sheffield가 설립되어 물리적인 개발뿐만 아니라 경제 및 문화적인 측면까지 포괄하는 도시재생을 추진

2) 인터뷰 및 현장조사 결과

- Creative Sheffield(URC)를 통해 도시재생 추진
 - URC는 중앙정부의 인가를 받은 민간적 성격의 기관으로서 HCA(Homes and Communities Agency), RDA(Yorkshire Forward), Sheffield city council과 연계되어 있음
 - Funding : HCA(국가차원), RDA(광역차원), City Council(지방차원), Creative Sheffield(민간차원)
 - Board(위원회) : 민간·공공의 위원 45인 구성
- Mater Plan의 내용과 역할
 - 비전 & 양질의 문서 작성, 장기적 접근 가능, Mater plan 자체가 공공 컨설팅 대체, 그리고 마케팅할 수 있는 기반과 역할을 수행함으로

써 이를 통해 Funding 가능, 자체평가의 기준이 됨

○ 공공공간 투자의 중요성 중시



[그림 9] 자동차도로가 보행도로로 변화



[그림 10] 공공공간의 확충 : 윈터가든
(도심부에 부족한 공공공간 및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다양한 위계의 보행공간과 연결)



[그림 11] 혁신적 디자인의 주차장

- 공공 디자인에 의한 보행로를 확보하고, 역사적 건축물을 보존함은 물론, 주차장 등의 공공시설을 공공공간으로 변화시킴
- Leopold Square는 공공이 작성한 Mater plan에 민간이 관심을 갖고 투자하여 건설하는 것으로 초기에는 민간의 안을 시에서 수용하지 않았으나 Creative sheffield가 조율함

○ 주차장을 혁신적으로 디자인하여 도심의 명물로 재탄생

4. 맨체스터(Manchester)

1) 맨체스터의 도시재생

○ 맨체스터 도시재생사업의 배경

- 영국 북서부에 위치한 지역적 중심도시로 2004년 현재 43만명 거주
- 산업혁명 당시, 방직을 비롯한 공장, 운하, 철도가 중심시가지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 후 인구감소, 실업률의 증가로 도심부 쇠퇴
- 1996년 폭탄테러에 의한 도심부 쇠퇴를 재생의 기회로 활용
- 1997년 도시의 미래상을 담은 도시장기발전계획 발표

○ 도심재생을 위한 노력

- 2000년, 새로운 밀레니엄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디자이너도매쇼핑몰(Lowly Designer Outlet Mall) 사업을 진행함



[그림 12] 맨체스터 시청 담당자와의 인터뷰

- 2002년 맨체스터시와 맨체스터 도심관리회사(맨체스터 도심부를 체계적으로 정비 관리하기 위해 2000년 2월 창설된 기구로, 도심부 정비 및 관리를 위해 실행 가능한 기준들을 설정하고 공공과 민간부문의 협력관계를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음)가 도심정비전략계획(City Center Strategic Plan 2002 · 2005 · 2009) 수립

2) 인터뷰 및 현장조사 결과

○ Master plan 작성

- 1996년 11월 상업시설의 재보수, 경제활성화, 교통시설, 도심환경 조성, 공공공간 조성 등의 목표로 마스터플랜 작성
- City Centre 전략 : 처방적, 방향제시적, 파트너십에 의해 작성, 도시 확장
- 계획 작성의 과정 : 초안 작성 → 마스터플랜 작성 → 외부 컨설팅(독립적 작성) → 피드백 → 마스터플랜 반영 → 최종 마스터플랜 작성

○ 도시재생 성공요인 : 강한 리더십, 파트너십, 서비스 산업의 향상

○ Hulme 지역

- 맨체스터 City Centre 인접의 침체지역
- 1980년 초 페스트의 확산, 높은 범죄율, 심각한 커뮤니티 건강문제, 경제쇠퇴를 겪은 슬럼지역
- 1970년대 인기 있던 건물은 난방의 어려움, 어린이 추락, 습기에 대한 대처 등 주거환경이 열악해져 삶의 패턴에 부정적 영향, 공기질 증가.
- City Challenge Fund 투입되어 1992년 Master Plan 작성
 - 건축물 및 고가도로 철거
 - 공동화된 주택 철거 및 보수, 기존 주거공간의 확장
 - 양질의 공공공간 커뮤니티 시설과 공원의 재정비 및 쇼핑시설 신설
- 현재도 1992년에 작성된 Master Plan의 Layout을 유지하고 있음

5. 리버풀(Liverpool)

1) 리버풀의 도시재생

○ 리버풀 도시재생사업의 배경

- 리버풀시가 문화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게 된 배경은 영국의 전설적 그룹 '비틀즈'와 프리미어 리그 '리버풀 FC'의 영향이 큼.
- 18세기에 건설한 시청사, 19세기의 각종 공공 건축물, 20세기의 영국 성공회 및 로마 가톨릭교의 성당과 리버풀대학, 각종 공공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리버풀 교향악단이 관광객을 불러 모음.
- 머시 디벨롭사(Mersey Developpe Corporation)가 개발한 관광·레저 중심의 전략, 문화 인재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 영화·비디오·방송분야에 많은 예산 지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도시 마케팅, 페스티벌의 개최, 문화거리 건설 등으로 2,500여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발생함
- 앨버트 독은 머시 디벨롭사의 선창가 지역 재건 전략을 통해 영국의 3대 관광지 중 하나가 됨

○ 문화도시 운영

- 1980년대 후반부터 공공분야와 민간기업의 협력을 통해 문화·관광 측면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 대두
- 2003년 6월, 체계적인 준비 끝에 버밍햄, 브리스틀, 카디프, 뉴캐슬, 옥스퍼드와 경쟁해 'European Capital of Culture 2008'에 선정되어 유럽 문화 중심도시로의 성장 발판을 마련함
- 문화중심도시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시의회 의장이 리버풀 문화사(Liverpool Culture Company)의 CEO를 겸임하고 있어 일관된 정책과 정책적 지원이 동시에 이뤄져 2005년 현재 높은 관광수입과 고용

창출의 효과가 나타남

-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특정 주제로 수백 개의 이벤트를 개최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문화적인 삶을 영위하게 함
- 문화중심도시로의 육성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들을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리버풀 첫 번째 워크북(Liverpool First Workbook, 2002~2005)을 발간함. 이를 통해 시민들로 하여금 목표의식을 갖게 하고, 리버풀을 함께 만들어간다는 의지를 부여함
- 리버풀 시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시 운영 6대 원칙을 수립함. 그 수립 원칙은 ① 정책적인 지속성과 일관성 유지 ② 흑인 및 다른 소수민족사회, 장애인, 여성 등 함께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평등성 ③ 사회 내부적인 문제(범죄, 사회보험, 고용, 교육 등)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권리 보장 ④ 시민들의 시에서 실행하는 정책과 프로그램에 적극적인 참여 유도 ⑤ 거주민 및 사회단체 등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공동체 계약체결 ⑥ 문화중심도시 육성에 관련된 모든 주체에게 최상의 가치를 부여하며 모든 행동의 중심에 수요자를 위치시켜, 접근성을 높이려 노력함

2) Professor Michael Parkinson⁷⁾ 인터뷰 결과

○ 중소도시의 현황

- 영국의 수도인 런던은 국제도시이며 국가경제를 주도함. 이러한 수도권 집중은 유럽 및 한국도 예외가 아님
- 뉴캐슬, 리즈, 셰필드, 맨체스터 등은 Secondary city 즉, 중소도시임. 이러한 중소도시 성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유럽전체가

7) Michael Parkinson 교수님은 현재 Liverpool John Moores University에 재직하고 있으며, European Institute For Urban Affairs에서 유럽의 지방중소도시재생에 관한 연구 및 자문을 하고 있음.

10년간 고민 중임

○ 도시재생 정책 재원의 효과적 배분

- 영국 정부에서도 사회적, 경제적 사회기반시설 등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 고민
- 지난 30년간 사회적 측면에 집중하였으며, 최근에는 경제적 성장에도 관심을 가짐
- 노동당 정부는 혁신, 교육, 물리적 연결성, 장소의 질, 거버넌스 등 5가지에 집중하였음
- 노동당 정부에 있어서 '런던에 집중된 자원을 어떻게 분배하고 권한을 이양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중요한 현안 중의 하나임

○ 한정된 재정과 자원의 효과적 지원 방안

- 현재로서는 건강, 기반시설, 교육 등 상황보다는 지표에 의해 자동적으로 분배하기 때문에 결과가 불분명함
- 새로운 타입의 재원인 도시재생기금도 공공에서 자동적으로 95%를 집행하고 5%만이 민간에 의해 집행됨. 따라서 95%는 비유동적이고 5%만이 유동적임
- 도시재생 기금은 도시재생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너무 많은 시도로 혼란만 야기함. 이에 단순화, 투명화, 합리적 계약관리 필요
- 많은 공공자금에 대해 지방정부가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지방정부가 역량이 부족하다면 힘들



[그림 13] Professor Michel Parkinson
과의 인터뷰

6. 뉴캐슬(Newcastle)+게이츠헤드(Gateshead)

1) 뉴캐슬+게이츠헤드의 도시재생

○ 뉴캐슬+게이츠헤드의 도시재생사업의 배경

- 노섬브라이 주의 주도인 뉴캐슬 어폰 타인은 잉글랜드 북부 최대의 도시
- 잉글랜드 북부의 교역 중심으로서 중세를 거치며 전성기를 누렸고, 17세기에는 석탄 수출로 큰 부를 축적함
- 그리고 산업혁명 이후에는 제철과 조선으로 크게 발전했으며, 기관차 발명으로 유명한 조지 스티븐슨과 수압기 발명으로 이름 높은 암스트롱 같은 인재를 배출함
- 뉴캐슬과 라인강 사이에 위치한 인구 20만의 작은 소도시인 게이츠헤드는 우리나라 거제시처럼 조선도시로 유명
- 2차 대전 이후 시대적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해 제조업의 몰락 등으로 인해 공장들이 폐쇄됨
- 게이츠헤드 의회는 1998년 약 16억원을 들여 도시의 랜드마크인 ‘북쪽의 천사(The Angle of the North)’ 라는 대형 야외 조형물 건립

2) 현장조사 및 인터뷰 결과

○ 1NG(OneNG)의 역할

- 1NG는 뉴캐슬과 게이츠헤드를 하나(One)로 통합하여 다양한 전략을 실행하는 반공공기관임
- 전체지역 계획을 세우다 보니 소유권 문제 등이 발생하나 1NG는 권한이 없으나 RDA가 권한을 갖고 있어 1NG의 사업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줌

- 광역지역간의 과다 경쟁을 줄이는 역할
- 도심지역개발 집중함 : 그 이유는 효율성 높이기 위한 교통 집중, 사람 집중 위함



[그림 14] 제분공장을 리모델링한 발틱 미술관



[그림 15] 뉴캐슬과 게이츠헤드를 연결하는 밀레니엄 브리지

○ 세계적 · 국제적 도시 위한 전략사업

- 생명공학, 마케팅, 전기기술(전기충전 기술), 풍력발전기술, 도시 전체가 아닌 지역별 장점을 특화

○ Urban, Market Town 등 공간별 재생전략

- 광역지역의 전략은 사실상 도시에 집중되어 있고 Market Town에 여러 성공사례가 있지만 부족한 실정임
- 도시에 있어서는 도심에 집중함으로써 주변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전략을 취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도시에 집중되고 있음
- 예를 들어 광산지역을 활성화 하고자 할 때, 현실적으로 발전가능성과 기회가 적은 광산지역에 기반시설 등을 투자하기보다는 도심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통근 · 통학 기능을 확대하는 전략이 효과적

Ⅲ. 시사점 및 결론

1) 공공 역할의 중요성

- 계획수립단계부터 도시의 문제파악 및 재생 방향을 제시한 공공의 리더십은 재생사업과정에 있어서 지원에 대한 확신을 주었으며, 견고한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공의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음
- 복잡한 물리적 관계나 권리관계 등에 대한 문제를 공공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보행공간, 공공공간,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등 민간에서 투자하기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 공공이 먼저 투자한 후 민간의 투자를 유발시키고자 하였음
-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한 주변지역까지의 파급효과에 따라 개발과정에서 개발업자의 이익만을 대변하지 않고 지역 커뮤니티가 지속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였음


2)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파트너십에 의한 추진

- 영국의 도시재생사업 초기에는 중앙정부 주도하의 재생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러한 하향식 재생사업은 커뮤니티 붕괴, 개발이익이 주민에게 환원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 시켰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파트너십을 의무화 시키는 등 제도를 정착화시킴
- 조사한 지역 모두 민간, 지자체, 지역주민, 단체 등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물리적 재생사업뿐만 아니라 사회적 · 경제적 · 문화적 재생사업의 성공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3) 마스터플랜의 작성

- 도시재생마스터플랜(파트너십을 통하여)을 작성함으로써 도시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인 비전 공유, 명확한 사업전략 제시,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은 성공의 중요한 요인임
- 마스터플랜은 자연스럽게 시를 마케팅하고 민간투자에 대한 확신을 주어 펀딩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새로운 도심재생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데 있어 기존의 도심재생마스터플랜을 평가하고 검토함으로써 일관성을 유지하고 경제전략 등 기존계획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반드시 모니터링과 평가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초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함

4) 우리나라 지방중소도시재생에의 유의점

- 인터뷰 및 답사결과 영국의 지방중소도시재생사례는 이제 막 도시재생 연구가 본격화되고 있는 우리나라 중소도시재생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음
- 그러나 영국은 과거 산업지로서의 명성과 유산 등 역사적 자원이 풍부하고 1990년대 도시재생사업이 본격화된 이래 2008년까지 경제가 성장하는 등 우리나라와 다른 여건이 있음
- 따라서 영국의 중소도시재생 성공사례를 무조건적으로 따라하기 보다는 한국여건에 맞는 지방중소도시재생을 위해 고민하고 연구를 지속해야 함 

CDI 자료집 2009-13

2009년도 해외출장 보고서

- 발 행 자 김 용 웅
- 발 행 처 충남발전연구원
 - 주 소 : [314-140] 충남 공주시 금흥동 101번지
 - 전 화 : 041-840-1123 팩스 : 041-840-1129
 - Web : <http://www.cdi.re.kr>
- 인 쇄 일 2009년 11월 25일 (수)
- 인 쇄 처 필성인쇄사 (T.042-252-1689)

본 자료집은 '충남발전연구원'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비매품)

